

1798년에 편찬한 『영남인물고』와 그 위상*

이재두**

-
- | | |
|--------------|----------------|
| 1. 머리말 | 4. 수록 인물 검토 |
| 2. 편찬 과정 | 5. 『영남인물고』의 위상 |
| 3. 구성과 수록 인물 | 6. 맺음말 |
-

초록: 1798년(정조 22)에 편찬한 『嶺南人物考』는 출판에까지 이르지 않았고, 복본을 두지 않은 유일 필사본이다. 수록 인물의 극히 일부는 생몰 시기나, 행적이 사실과 다르기도 하다. 정조 말 경상도 사족들은 『해동인물고』의 제작 관련 정보를 오해하여 소문을 듣고는 자신들의 선조를 『해동인물고』에 수록하기 위하여 관련 문적을 들고 다수의 인물이 상경하였다. 소문의 단초는 역대 경상도의 유명 인물을 알고자 했던 정조가 김희락에게 영남문적 수집을 지시하면서 시작되었다.

김희락도 참가하고 있던 『해동인물고』는 이전에 편찬한 『국조인물고』의 장황한 내용을 요약하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경상도 사족들이 선현의 문적을 들고 몰려들면서 이들을 무마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해동인물고』와 별도로 당시 거둬들인 영남문적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 『영남인물고』이다. 경상도 사족의 조상 현창과 정치 참여 욕구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정조의 임시변통책이었다.

따라서 『해동인물고』와 별도로 『영남인물고』를 편찬한 것을 ‘영남우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정조가 ‘御定人物考’ 편찬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인물고를 굳이 출판할 필요는 없었다.

핵심어 : 『嶺南人物考』, 『御定人物考』, 正祖, 金熙洛, 慶尙道

* 이 논문은 2021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지원에 받아 수행한 연구임.

** 영남고등학교 교사.

1. 머리말

『嶺南人物考』는 조선시대 경상도 주요 인물의 생애와 행적을 기술하고 정리한 전기류 문헌이다.¹⁾ 원래 규장각 이문원에서 관리해 오던 도서로 모두 17책이었으며,²⁾ 이 가운데 7책을 1909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통감을 그만둘 때 일본으로 반출하였다.³⁾ 그리하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그동안 권1부터 권10에 해당하는 10책만을 소장해 왔다. 100여 년이 지난 2011년 일본으로부터 조선왕조 도서 150종 1,205권을 반환받을 때, 『영남인물고』 7책도 포함되면서 『영남인물고』 17책 완질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⁴⁾ 국립고궁박물관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에서는 『영남인물고』의 서지사항과 원문보기가 가능하다.⁵⁾

환수 당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영남인물고』에 대하여 '정조 22년(1798)에 정조의 명에 의하여 조선초기부터 정조 연간에 영남각처에서 배출된 학자, 정치가, 문학 등의 인물을 기록한 책이다. 각 인물의 행장이나 언행록, 묘지, 신도비, 제문 등의 유사를 토대로 초록한 것이다. 현재 규장각에 권1~10이 있는데 원래 17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나머지 7권이 돌아왔다. 이번에 돌아온 7책은 권11~17로 추정되었으나 권11~15, 전체 목록 1책, 그리고 54개 지역별 인물이 활동한 시기와 직책을 기록한 초록본 1책이 있다'고 하면서, 권11~15의 편찬자와 지역별 수록 인원을 제시하였다.⁶⁾

-
- 1) 傳記類는 '인물의 생애와 행적을 기술하고 정리한 문헌류'이다. 조준호·손성필, 2020 「『한국고전총간』 '전기류'의 편찬 방향 검토」, 『민족문화』 55, 9면.
 - 2) 白麟, 1968 「伊藤博文에 貸出한 奎章閣圖書에 대하여」, 『書誌學』 創刊號, 韓國書誌研究會, 24면.
 - 3) 이상찬, 2002 「이등박문이 약탈해 간 고도서 조사」, 『한국사론』 48, 서울대 국사학과, 264면.
 - 4) 전병철, 2011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 진주편(晉州篇) 등재인물의 시기별 특징」,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경남학』 32, 156면.
 - 5) 『영남인물고』, 국립고궁박물관(www.gogung.go.kr, 검색일: 2019년 10월 18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검색일: 2021년 1월 1일).
 - 6) 박상국, 2011 「일본에서 돌아온 조선왕실도서」, 『다시 찾은 조선왕실 의궤와 도서』, 국립고궁박물관, 212-213면.

1967년 강주진은 『영남인물고』를 번역 출간하면서 선산·예천·인동 편 등이 없어서 길재·박영·정탁·장현광과 같은 학자들이 빠져 있고, 경남 일대의 많은 고을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 결본된 7권이 여기에 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⁷⁾ 백린은 『영남인물고』가 『增補文獻備考』와 『摛文院書目』에는 모두 17권으로 되어 있었으나, 1910년 이후에 나온 규장각 서목이나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의 『古鮮冊譜』에는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7권을 이토 히로부미가 1904년이나 1905년에 대출하여 반출한 것으로 추론하였다.⁸⁾

1988년 신승운은 『영남인물고』가 1차 전기 자료에서 간단한 전기를 초출하여 앞에 제시하고 그에 대한 嘉言·善行을 수록한 다음, 해당 자료의 전거를 밝혀주는 방식으로 편찬하였으며, 정조 만년 채홍원·정약전·이치훈 등 남인계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것으로 파악하였다.⁹⁾ 또한 『국조인물고』는 한 인물에 한 종씨의 전기 자료를 선택하여 전문을 전제하는 방식이지만, 『영남인물고』는 대상 인물의 성명을 먼저 제시하고, 행을 바꿔 성명·자·호·관향·생년·과방·역관·졸년의 순으로 인물의 인적 사항을 초출·기재한 다음, 행을 바꾸어 중요한 언행에 대한 기사를 초록하고 마지막에 자료의 전거를 밝히는 순서로 서술한 사실을 밝혔다.¹⁰⁾ 그는 『영남인물고』가 서인계 중심인 『인물고』의 보족적인 것으로 행정 구역에 따라 인물을 수록하는 방법을 택하였지만, 미완성 단계에서 정조의 승하 및 남인의 퇴조와 함께 중단된 것으로 보았다.¹¹⁾

2002년 김문식은 초계문신이었던 김희락과 채제공이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영남 인물의 행적 현창이라는 차원에서 1798년 10월에 12일 만에 『영남인물고』를 편찬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현재 규장각에 있는 10책이 행장·언행록·묘지·신도비문·제문과 같은 자료에서 각 인물의 기본적 행적을 추출하고, 부분적으

7) 蔡弘遠 等著, 姜周鎭 譯編, 1967 『嶺南人物考』, 序文, 탐구당, 5면.

8) 백린, 앞의 논문, 19, 22, 24면; 이상찬은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반출한 사실을 밝혔다. 이상찬, 앞의 논문, 264면.

9) 辛承云, 1988 朝鮮朝 正朝命撰 人物考 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서지학연구』 3, 224면.

10) 위의 논문, 245-246면.

11) 위의 논문, 254면.

로 평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정리하였으며, 인용 자료 중에는 체제공이 지은 글이 많이 들어있어 체제공의 주도하에 편찬 작업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는 『영남인물고』에 수록된 19개 지역 인물 543명의 명단을 제시하였는데, 길재·정탁·장현광·김굉필·조위와 같이 분명한 행적을 남긴 영남 인물들의 기록이 빠져 있고, 정조가 편찬을 담당할 관리로 임명한 사람 중에도 누락된 이가 많은 것으로 보아 결본으로 판단하였다.¹²⁾

전병철은 정약용의 ‘영남인물고 서’와 장서각에 소장 중인 「영남인물고의례」를 발굴하였으며, 『영남인물고』 진주편에 실린 42명의 인물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1기는 관료형 인물, 2기는 남명학파 인물, 3기는 국난 극복 인물을 수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¹³⁾ 김성우는 정조가 『영남인물고』의 편찬을 통해 영남의 고가세족이나 망족(望族)들의 자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등용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하였다.¹⁴⁾

최근 김문식은 『영남인물고』 편찬 당시의 『승정원일기』 기록과 『영남인물고』의 권정침 기록을 제시하면서 이전의 글을 보완하였으며, 『영남인물고』 17책의 완역본 간행을 제안하였다.¹⁵⁾ 김백철은 『영남인물고』가 19개 고을만을 대상으로 하고 경상도 모든 고을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영남 소외론을 제기한 이수건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전국단위 『인물고』나 『국조인물고』에는 2천여 명을 수록하고 있는데 경상도만 별도로 6백여 명을 추가로 선별했다면 이 자체가 특혜이며, 『무신창의록』에 비하여 명현을 선별한 『영남인물고』에 등재되는 것이 훨씬 더 영광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⁶⁾

12) 김문식, 2002 「18세기 후반 영남 남인의 동향과 정조의 조치」, 『조선의 정치와 사회』, 집문당, 368-372면(김문식, 2007 제6장 영남 남인에 대한 조치,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445-451면).

13) 전병철, 앞의 논문, 152-156, 165-166면.

14) 김성우, 2012 「정조 대 영남 남인의 중앙 정계 진출과 좌절」, 『다산학』 21, 다산학술문화재단, 198면.

15) 김문식, 2019 조선후기 영남만인소의 정치적 의미, 『만인의 청원, 만인소』, 한국국학진흥원, 16-19면, 28면.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남인물고』를 보면, 선행연구에서 결론일 것으로 추정된 근거로 제시하였던 길재와 조위를 수록한 고을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정탁은 예천군(권11-1), 장현광은 인동부(권14-2), 김굉필은 현풍현(권1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11~권15에는 38개 고을을 포함하고 있는데, 고을별 수록 인원은 안동부나 상주목보다 훨씬 적은 수이며, 별책 2책을 포함하고 있다. 『영남인물고』는 대체로 충신·효자·관료·학자이며, 영남 남인들이 전국단위의 ‘御定人物考’에 수록하기를 희망한 인물이면서 정조의 인정을 기대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영남인물고』의 편찬 과정, 구성과 수록 인물, 수록 인물 검토, 『영남인물고』의 위상으로 장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하여 『영남인물고』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 편찬 과정

『영남인물고』는 어람용으로 제작한 단 한 종의 필사본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1798년(정조 22)에 정조가 채제공·권업·이가환 등에게 조선 건국 이래 경상도 도내의 이름난 인물의 행적을 채록하고, 고을별로 분류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도록 명하여 15권 15책(별책을 포함하면 17책)으로 편찬한 것이다.¹⁷⁾ 『영남인물고』 편찬은 초계문신 金熙洛(1761~1803)이 남긴 기록을 통하여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김문식은 그의 기록을 중심으로 『영남인물고』의 편찬 전말을 상세하게 밝혔다. 그러나 1798년 10월 12일에 편찬을 시작하여 불과 12일 만에 끝났으며, 영남 출신인 김희주가 편수관에 포함되었다고 본 것은 사실과 다르다.¹⁸⁾ 자료 수

16) 이수건, 1995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일조각, 548면; 김백철, 2021 『18세기 영남 ‘叛逆鄉’담론의 실상과 허상』, 『영남학』 76, 185-188면.

17) 전병철, 앞의 논문, 156면; 「嶺南人物考義例」(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MF35-004667). “歲戊午 命判府事蔡濟恭前判書權灑李家煥等 採國朝以來道內聞人事行 州郡以分之 作爲一書 凡十五卷 得八百五十八人”

집 기간을 제외한 찬집 시기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이었으며, 수찬 김희주는 김희락의 기록과 각 권의 貼紙(附箋紙)를 보면 편수관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영남인물고』 편찬은 1798년 8월 정조가 김희락에게 영남에 선현의 문적을 纂輯한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하면서 시작하였다. 김희락은 정조에게 정유일이 명신록을 편찬한 적이 있다고 하였지만, 이 책은 퇴계집과 정유일의 비문을 통해 전란 중에 불탄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흘 뒤 정조는 승지 채홍원을 시켜 김희락에게 영남에 서신을 보내도록 하였다. 이에 김희락은 상주의 정종로, 경주의 이정덕, 선산의 박천건, 안동의 호계서원과 예안의 도산서원에 글을 내려 1개월 안에 선현의 문적을 모아 올리도록 하였다.¹⁹⁾

당시 규장각에서는 『인물고(해동인물고)』를 편찬하고 있었다. 김희락의 서신으로 인해 경상도에서는 소문을 듣고 각자의 遺蹟을 들고 많은 사족들이 상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물고』에 자신들의 선조들을 입록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당시 편집 중이던 『인물고』는 이전에 편찬한 『인물고(국조인물고)』 원본에 의거하여 방대한 분량을 일정하게 줄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책명도 동일하였다. 그런데 영남 사족들이 가지고 온 책자는 본래 『인물고』에 없던 것이었기 때문에, 제작 중이던 『인물고』 초록본에는 수록할 수 없었다. 정조는 영남문적들을 그대로 두기도 곤란하여 책자를 들여오게 하여 都目錄을 작성시켰다. 이어서 전 좌상(채제공)이 주관하여 친지 가운데 젊은 문신들에게 속히 나누어 베껴 3, 4일 안에 수정하여 들이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범례는 『인물고』 초록 당시의 방식을 따도록 하였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798년 10월 4일의 일이었다.²⁰⁾ 10월 11일에는 정조가 지

18) 김문식, 2002 앞의 책, 368-372면(김문식, 2007 앞의 책, 445-447면); 김문식, 2019 앞의 논문, 16면.

19) 金熙洛, 『故寔』 권5, 奎章閣記注筵說(유교넷) “戊午 … 八月 … 上問嶺南有纂輯先賢文蹟否. 臣熙洛 對曰 故大司諫臣鄭惟一 纂名臣錄. 上曰 本孫持冊上來. 熙洛歸津 攷退溪集及文峯碣銘 乃宋朝續名臣錄 東憲錄失於兵燹. 直入內閣 以實對上曰 更爲搜問 粵三日 上令承旨蔡弘遠傳命于臣熙洛 發書嶺南 卽雇人書告于鄭持平宗魯 李參議鼎惠 朴士人天健 安東虎溪 禮安陶山 限一月 鳩聚”

시를 내린 지 5·6일 만에 46권의 책자를 완성하였다.²¹⁾

당시 작성한 도목록은 『영남인물고』 별책의 초목이며, 채홍원이 언급한 46권은 당시 수집한 영남문적을 그대로 성책하였거나, 동일한 인찰공책지에 재필사[謄出]한 권수로 여겨진다. 이후 『인물고』 초록과 같은 방식으로 각 인물의 전기를 발취·요약하여 『영남인물고』 15권을 완성하였다. 그런데 초목의 인물과 총목의 인물이 동일하지 않은 것을 보면, 『영남인물고』는 이미 성책한 ‘영남문적’ 46권 수록 인물 중에서 일부 인물을 제외시키고, ‘영남문적’에 없던 인물을 추가하기도 한 것이다. 전국 단위의 『인물고』에 수록한 인물을 제외하면서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았겠지만, 전국 『인물고』와의 대조 과정을 생략하여 대부분의 편찬자들은 ‘전국 『인물고』’ 수록 인물도 기재하였으며, 일부는 ‘전국 『인물고』’ 수록 인물을 누락하기도 하였다.

사실 김희락의 서신으로 인해 영남 사족들 다수가 문적을 들고 서울로 몰려들어 서신 발송 당사자인 김희락을 곤란하게 하였다. 『승정원일기』 10월 4일과 11일의 기록과 달리, 김희락은 10월 9일부터 기록하고 있다. 10월 4일과 11일은 영남문적 1,000건의 도목록을 작성하고, 46권으로 성책한 기록이다. 김희락은 『인물고』 초록에서처럼 ‘영남문적’ 46권에 수록한 각 인물의 전기류를 발취하여 『영남인물고』 15권을 제작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정조는 영남문적을 가져오게 하여 보고는 영남을 인재의 부고라고 하는데 역시

20) 김문식, 2019 앞의 논문, 17면: 『승정원일기』 정조 22년 10월 4일 “戊午十月初四日辰時上御便殿. … 上曰 向者人物考抄謄之後 聞嶺人多上來 各以其遺蹟 願錄入人物考云 此所謂聞風而來者矣. 此與人物考 凡例有異. 人物考則自有原本 故依其本 略約抄錄 仍原册名. 名曰人物考. 今此嶺人之所持來册子 則本不入於人物考 有難一例錄入矣. 然既聞之後 亦難仍置故其册子 日前使之入之 今成都目錄矣. 欲令一番抄謄 而書役張大 此意傳于前左相 以爲主管 使親知中年少文臣等 斯速分謄 限三四日 修正入之也. 仍教(抄啓文臣金)熙洛曰 爾其同爲謄出 而凡例 不必依人物考爲之 而其中可觀文字 勿爲落漏也”

21) 『승정원일기』 정조 22년 10월 11일 “戊午十月十一日辰時 上御便殿. … 上曰 嶺南人有名稱者行蹟所謄册子 未知爲幾卷耶. (前承旨蔡)弘遠曰 合爲四十六卷矣. 上曰 雖是分謄 而五六日之內 謄出四十餘卷 可謂神速矣. 今欲於此册中 抄出爲人物考 依鑄字所抄謄例 以其初次謄書人 分掌抄出 則似無生疎之歎 使之從速謄出 可也”

그러하다고 하였다. 정조는 채홍원에게 영남 유생이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것이 걱정이라며, 김희락과 함께 빨리 초록하여 책으로 만들도록 하였다. 초록범례는 9월에 시작하여 10월 4일에 마친 『해동인물고』에 따라 5일 내에 한곳에 모여서 하도록 하였다. 김희락은 『해동인물고』의 편찬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인물고 수록규정(범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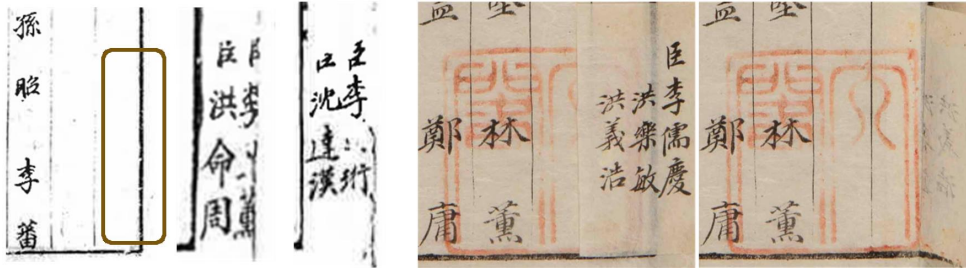
당시 규장각에서는 74책에 이르는 『국조인물고』를 요약하였는데 本考 23권, 續考 2권, 총목 1권으로 성책한 상태였다.²²⁾ 당시 김희락은 尹光顔과 함께 권7 名流 수록 54명의 전기류를 초록하였다. 채홍원이 그동안 모인 ‘천여 권[名]’의 영남문적을 5일 내에 정리하여 성책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나, 정조는 5일 내에 『영남인물고』를 완성하여 이 문제로 서울에 온 자들이 속히 돌아갈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였다.²³⁾ 따라서 『영남인물고』 편찬은 『해동인물고』 수록을 기대하며 상경한 경상도 사족들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조는 『영남인물고』 편찬을 위해 체제공을 총재관으로 임명하였으며, 김희락을 비롯한 ‘19명’의 인물을 편수관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²⁴⁾ 이 책의 편찬에는 대체

22) 『人物考』(奎4196-v.1-26).

23) 金熙洛, 『故寔』 권5, 奎章閣記注筵說(유교넷) “十月初九日 命熙洛弘遠入侍 都承旨李晚秀 假注書李弘謙 同被召命. 上曰 嶺人 以文蹟事無數上來云 果否. 弘遠曰 金熙洛近日所處極難堪. 上曰 爾何以藪數招來. 熙洛對曰 鄉人爲風聲所動 私自相通 如是張皇 不勝悚惶. 上曰 何悚惶之有 司謁持嶺蹟進 上顧晚秀曰 嶺南稱人才府庫 果然 顧弘遠曰 嶺儒留連可悶 與金熙洛 卽卽抄錄成冊 顧熙洛曰 前月海東人物攷抄錄時 爾其與焉 同事者幾人 幾日子當. 對曰 十餘人四日畢役. 上謂弘遠曰 抄錄凡例 金熙洛知之 限五日 會一處爲之. 弘遠對曰 千餘卷文蹟 五日內萬無寫進之望. 上曰 五日已寬 留連者 使之速還可也”

24) 金熙洛, 『故寔』 권5, 『奎章閣記注筵說』 “今番事 四百年盛舉 爲嶺南 成出人物攷. 當於榻前 差定 口呼前左議政 蔡濟恭 爲總裁官. 次呼編修官左承旨李祉永 前承旨 蔡弘遠 前佐郎 金熙洛 前兵曹判書 權唵(示+嚴) 前咸鏡監司 李鼎運 前參判 尹弼秉 前都正 陸萬中 前承旨 權坪 洪義浩 執義 韓致應 前修撰 沈奎魯 李錫夏 正言 沈達漢 李基慶 李之珩 抄啓柳遠鳴 姜浚欽 洪命周 假注書 李泳夏”: 정약용은 정조 즉위 22년에 명하여 영남의 모든 이름난 사람의 언행과 사적을 가져다가 뽑아 모아 책을 만들게 하였는데, 체제공이 총재가 되고 정약전과 한치용 등이 이 일을 관장하였다는 『영남인물고』 서문을 남겼다. 정약용, 『茶山詩文集』 권13, 序 嶺南人物攷序. “上之二十二年. 命取嶺南諸聞人言行事蹟. 鈔撮爲書. 蔡文肅爲總裁. 而仲氏與韓侯甫諸人. 實掌斯役”



〈그림 1〉 『영남인물고』 권6, 7, 9, 15의 첩지

로 체제공과 친한 남인계 인물들이었으며, 모두 武庫(軍器寺)에 모여서 편집하여 10월 12일에 완성하였다.²⁵⁾ 『영남인물고』는 각 권별로 첫 장의 우측 하단에 집필자의 명단을 첩지로 붙여두었다.

권1 채홍원, 권2 丁若銓, 권3 李儒修·한치응, 권4 목만중·심규로, 권5 윤필병·이정운, 권6 ?, 권7 이□훈·홍명주, 권8 채홍원·權應範·심규로, 권9 이□형·심달한, 권10 이지영·강준흠, 권11 권평·강준흠, 권12 洪樂敏·목만중·류원명, 권13 이영하·류원명, 권14 홍명주·김희락·이기경, 권15 李儒慶·홍낙민·洪義浩이다. 권6은 첩지가 남아 있지 않지만, 편수관으로 임명되었으나 다른 책의 첩지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권엄·이석하와 추가로 임명된 蔡弘履로 여겨지며,²⁶⁾ 권9의 이□형은 이지형이다.²⁷⁾ 체제공은 김희락의 기록보다 많은 20여 인이 편수관으로 참여하였다고 하였지만, 김희락은 실제 첩지에 이름을 남긴 정약진·이유수·권응범·홍낙민·이유경·홍의호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림 1〉 권7의 첩지 ‘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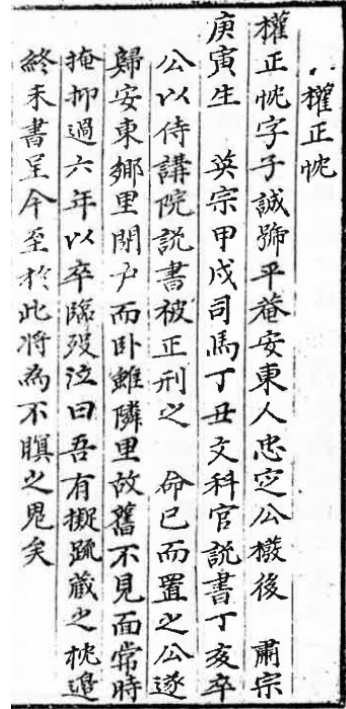
25) 蔡濟恭, 『樊巖集』 권19, 稀年錄 下. “上命述嶺南人物考 使賤臣總之. 卿宰侍從二十餘人任其事. 皆親知中人 而上所特差也. 武庫不遠而近又宏敞 合受多人 於是是以爲役所 以十月十二咸集”

26) 金熙洛, 『故寔』 권5, 「奎章閣記注筵說 “翌日 加差前判書蔡弘履 前承旨李儒慶”; 강주진은 ‘執筆者 貼紙紛失로 不明’, 김문식은 ‘失名’으로 처리하였다. 강주진, 앞의 책, 3면; 김문식, 2007 앞의 책, 448면.

27) 강주진은 당시 남인학자로 이름 있는 李世珩으로 추정하였으나, 김문식이 밝힌 것처럼 김희락의 기록을 보면 李之珩이 분명하다. 강주진, 앞의 책, 4면; 김문식, 2007 앞의 책, 448면.

李□薰의 □에 남아 있는 흔적을 보면 致보다 承으로 보아, 권7의 편수관을 이승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²⁸⁾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면서 이승훈·홍낙민은 천주교 신자로 체포되어 대역죄인으로 참수되었으며, 정약전은 유배되었다. 이에 김희락은 『영남인물고』 편찬 전말을 기록하면서 이들을 편수관 명단에서 제외한 것이다.

1798년 당시 영남 출신으로 중앙에 벼슬하고 있던 인물은 초계문신 김희락과 수찬 김희주, 좌랑 권응범, (부사과) 성언증 등에 불과하였다. 김희락은 정조의 명으로 권정침에 대한 상세한 행록을 찬진하였다.²⁹⁾ 정조는 권정침(1710~1767)의 행록을 보고는 그를 뵈 수는 없으므로 생졸년만을 써서 신도록 하였다.³⁰⁾ 그리하여 편수관들은 권정침(권3-49)의 인적 사항 2행과 행적 4행을 기록하였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던 권정행이 죽음에 임해서 울면서 말했다고 하는 “내게 의소가 있어 베개 가에 감추어 두었더니 마침내 써서 올리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니 장차 눈을 감지 못하는 귀신이 되겠다”는 기록을 남겼다.³¹⁾ 그는 사도세자의 서연관으로 있으면



〈그림 2〉 권정침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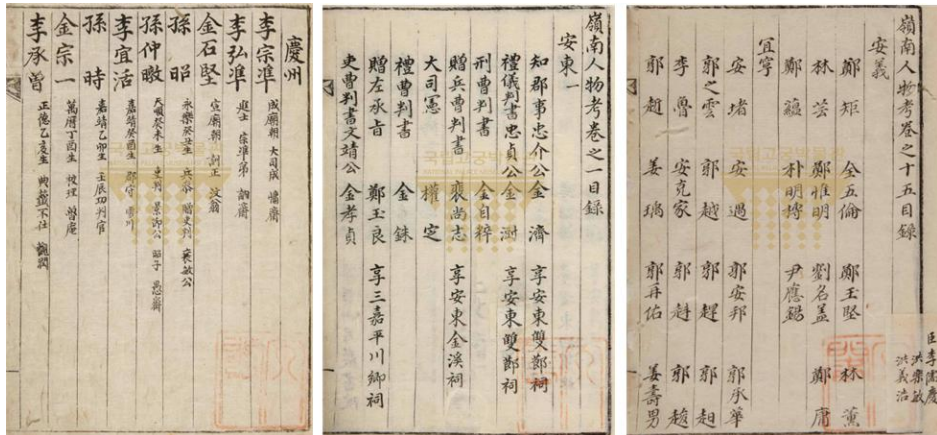
28) 강주진은 당시 남인학자로 이름 있는 李承薰으로 추정하였으며, 신승운은 체제공의 아들 채홍원과 정약용의 형 정약전, 이승훈의 아우인 李致薰 등 16명에 이르렀다고 하였으며, 김문식도 ‘臣 李□薰’을 이치훈으로 보았다. 강주진, 앞의 책, 4면; 신승운, 앞의 논문, 224면; 김문식, 2007 앞의 책, 448면.

29) 金熙洛, 『故寔』 권5, 奉教纂進故說書臣權正忱行錄.

30) 金熙洛, 『故寔』 권5, 奎章閣記注筵說, “上顧熙洛曰 嶺南侍從上來者 幾人 對曰 修撰 金熙周 佐郎 權應範 上曰 次次書填 又曰 成彥機來否 對曰 未來 又曰 權正忱行錄 來否 臣及弘遠 進 事係至重 不敢進入 上曰 然矣 此人行錄 豈可全然闕之 只書生卒年 編入可也”

31) 『영남인물고』 권3-49 권정침: 강주진, 앞의 책, 183면.

서 세자가 사망할 당시의 전후 사정을 상세히 밝힌 『書筵日記』를 작성했다. 정조 즉위 직후인 1776년 李應元의 상소나 1792년 영남만인소에는 권정침의 일기가 중요한 근거 자료로 제시되었으며 노론계에게는 민감한 내용이었다.³²⁾



〈그림 3〉 『영남인물고』의 별책인 초목과 총목 및 권15의 첫 면

『영남인물고』 수록 인물은 조선 건국부터 정조 통치기까지 활동한 조선시대 인물들이다. 인물에 따라서는 류성룡처럼 비문 전체를 수록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전기류의 일부를 발췌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편찬을 주도하였던 채제공의 글이 상당량이며, 인물별로도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채제공은 묘도문자와 문집의 서문을 통해 근기 지방은 물론 영남 남인과의 광범위한 결속을 꾀하였으며, 복인의 후예들까지 포섭하려고 하였다.³³⁾

10월 9일, 정조는 영남문적을 통해 유희춘이 지은 줄로 알고 있던 『경서언해』 편찬자가 류승조인 것을 알게 되었으며, 김희락 등은 궐에서 나와 미동에 가서 서사지를 나눠 받았다. 다음날인 10월 10일 전판서 채홍리와 전승지 이유경이 추가로 편수관에 임명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군기시에 모여 편집하였으며, 12일에 완성

32) 김문식, 2007 앞의 책, 446면.

33) 백승호, 2006 『樊巖 蔡濟恭의 文字政治』, 『진단학보』 101, 359면.

한 『영남인물고』를 성책하여 입게하였다. 이후 정조가 다시 정선하여 내각에서 간행할 예정이었지만, 정조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중지되었다.³⁴⁾ 그리하여 『영남인물고』는 1798년 10월에 정조에게 입게하여 정선 과정[御定]을 기다리던 필사본 한 질만 남게 되었다.

이후 『영남인물고』 전17책은 규장각에서 110년 동안 소장하였다. 1909년 이 가운데 7책은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으로 가져가 100년 넘게 일본 궁내성 도서료(궁내청 서릉부)에서 관리해 왔다. 당시 반출도서는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기 전 한국 사정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고, 식민 지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선별하여 가지고 간 ‘대한제국 제실도서’였다.³⁵⁾ 이들 도서는 2011년 ‘조선왕조 도서’로 일본 정부로부터 반환받아 2011년 말부터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³⁶⁾ 이에 따라 『영남인물고』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10책, 국립고궁박물관에 7책으로 소장처가 분산되어 있다.

3. 구성과 수록 인물

『영남인물고』는 모두 17권 17책이지만, ‘본책’ 15권과 별책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별책은 ‘초목’과 ‘총목’이라 할 수 있다.³⁷⁾ 초목에는 경주부 이종준부터 김해 송빈까지 1,078명을 인물별로 1행씩 배정하여 성명, 생년, 주요행적, 관직을 기재하

34) 金熙洛, 『故寔』 권5, 奎章閣記注筵說(유교넷) “又曰 經書諺解 果誰爲之 諸臣未及對. 上曰 予認柳眉巖 希春爲之 今見嶺蹟 柳崇祖 爲之 眞鉅儒也. 臣及弘遠 進曰 柳崇祖蔚爲 一代儒宗 五年大司成協贊弘多. 上曰 然矣. 退往美洞 分受書寫紙. 翌日 加差前判書蔡弘履 前承旨李儒慶. 齊會軍器寺 成出中草後 上復嚴勅精選. 召臣留闕校五子手圈. 凡十二日乃出 人物攷已成冊 伊日入啓. 將自內閣刊行 適值上候違豫 姑爲停止”

35) 이재두, 2020 「2011년 환수한 국립고궁박물관 『읍지』 74책의 유래와 특징」, 『조선시대사학보』 94, 404-405면 참고.

36) 위의 논문, 378면 참고.

37) 국립고궁박물관 www.gogung.go.kr/ (검색일: 2019년 10월 18일).

였다. 초목은 1798년에 경상도 사족들이 올린 문적들에 실린 인물 목록이라 할 수 있다. 『영남인물고』에는 초목의 1,078명 가운데 719명(중복 포함)만 실렸고 358명은 실리지 못했다. 초목을 보면 6명은 두 개 고을에 기재하였다. 문근은 안동과 예천, 문관은 안동과 용궁, 성윤해는 상주와 창녕, 금보는 예안과 봉화, 이보흠은 예안과 순흥, 정종은 성주와 칠곡에 걸쳐 나온다. 鄭種(1417~1476)에 대해 성주에는 ‘정통입술생 부윤 양평공 오로재’, 칠곡에는 ‘영락정유생 부윤 동평군 양평공’으로 기록하였으나, 출생시기는 칠곡의 기록이 정확하다. 1640년 칠곡도호부가 신설되면서 칠곡에 실려야 하지만, 분리되기 이전의 성주에도 기재한 경우이다. 청도의 박근·박지남·박철남·박구 4명은 표제 인물에 부기하는 형태로 실렸다. 『영남인물고』에는 초목과 다른 고을에 실린 인물도 적지 않다.

초목에 실린 창녕의 창녕 성씨 인물 10명은 창녕 勿溪書院에 배향된 인물들이다. 1712년(숙종 38) 창건 당시 성송국·성삼문·성담수·성수침·성운·성제원·성윤해를 배향하였고, 1797년(정조 21)에는 성사재·성승·성수종을 추가 배향하였다. 그런데 초목에서 물계서원 창건 당시부터 배향하고 있던 成渾을 배제한 것은 다른 지역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이와 성혼의 문묘종사에 반대하였던 남인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초목의 창녕 성씨 인물들은 본관지가 창녕일 뿐, 대부분 경상도 출신 인물이라 보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었다. 『영남인물고』 본책에서는 상주의 초목에도 기재하였던 성윤해만 유일하게 상주(권4·20)에 수록하였을 뿐, 나머지 9명은 모두 신지 않았다.

또한, 초목에는 ‘國朝人’이 아닌 신라인이나 前朝人인 경우도 보이지만, 본책에서는 제외하였다. 경주의 박제상(363~419)이나 이제현(1287~1367), 상주의 김득배(1312~1362), 안동의 김방경(1212~1300)과 김구용(1338~1384), 성주의 이인복(1308~1374), 청도의 이암(1297~1364)·이강(1333~1368)·김지대(1190~1266) 등이 해당한다. 이외에도 전조인이거나, 본관지이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 인물이거나, 수록 기준에 부적합한 인물도 있었다.

초목에는 경상도 71개 고을 가운데 20개 고을이 보이지 않는다. 본책에서 1명도 수록하지 않은 거제부·경산현·곤양군·기장현·남해현·언양현·연일현·웅천현

· 장기현 · 진해현 · 청송부 · 청하현 · 칠원현 · 흥해군 14개 고을을 비롯하여, 개령현 · 비안현 · 양산군 · 영덕현 · 지례현 · 하양현 6개 고을이다. 초목에 기재된 인물 가운데 『영남인물고』에 수록되지 않은 인물은 다음과 같다.

- 경주**(14명/40명) 이의활, 손시, 이승증, 이광익, 안성, 임화세, 정삼효, 양배, 이경한, 손엽, **박제상**, 이의윤, **이제현**, 주담수
- 상주**(33명/100명) 김선치, 김현, 김우태, 김시태, 노극신, 노도일, 노경명, 노하정, 홍상민, **신홍효**, 김형석, 강사인, 고세장, 왕준도, 홍도운, 채형, 김정룡, 한철충, 한가구, 강교년, 황뉴, 이익화, 정심, 정의모, 김승주, **김득배**, 김지복, 구종직, 정호선, 예귀주, 조정용, 권대기, 박언성
- 안동**(34명/124명) **김방경**, **김구용**, 김시선, 이장, 이상진, 권림, 이경연, 류언지, 류경시, 권희, 권급, 이봉춘, 정전, 권위, 류우잠, 권성구, 권이시, 권동보, 권채, 권래, 권두평, 권보, 권일기, 권정시, 권응도, 권윤안, 김기후, 권동미, 권구, 권정택, 권정웅, 남응원, 남연, 남천택
- 성주**(16명/47명) 이천배, 정유문, 도명화, 강선구, **이인복**, 이우, 이순, 도구, 도세순, 도한국, 여효주, 여중화, 최은, 이홍량, 이홍우, 이난귀
- 합천**(15명/30명) 김자, 조정립, 강인수, 강대적, 강지은, 강익무, 박경중, 주유, 주문좌, 문익성, 문계동, 문덕수, 김극민, 김수일, 김팔휴
- 선산**(18명/42명) 박영서, 김취성, 김성미, 김공, 김양, 고한운, 김하정, 김경, 박종원, 박호, 박연, 이수태, 강중진, 강경선, 윤홍선, 김진호, 노경필, 정동망
- 청도**(4명/25명) **이암**, **이강**, **김지대**, 박린
- 진주**(7명/36명) 이준민, 박안방, 박동무, 조천필, 조양필, 김백운, 하세희
- 의성**(11명/45명) **신윤유**, **신우**, 김통, 김시주, 김학배, 김태중, 김창문, 김창석, 이의준, 김사정, 임세장
- 영천**(26명/52명) 정석남, 최인제, 이영근, 김대해, 이지암, 이일장, 이득룡, 이득린, 이용현, 정중소, 정윤량, 김득생, 윤취선, 최벽남, 정호의, 정호신, 정시연, 정석달, 정중록, 정제, 권극립, 안국주, 안증, 안경설, 이경증, 손주
- 울산**(0명/4명)
- 순흥**(13명/44명) **안유[안향]**, **안축**, **안보**, 권성오, 박한, 황호, 김선, 홍중명, 손중관, 황한충, 안승검, 황세후, 성문하
- 창원**(0명/3명)
- 예안**(7명/41명) 이완, 이교, 김계광, 김충, 이수연, 이학표, 이수겸
- 밀양**(5명/21명) 이경홍, 손홍량, 손처약, 손단, 장희적
- 영해**(7명/14명) 정자영, 신정립, 남경훈, 남제명, 남국주, 김덕오, 권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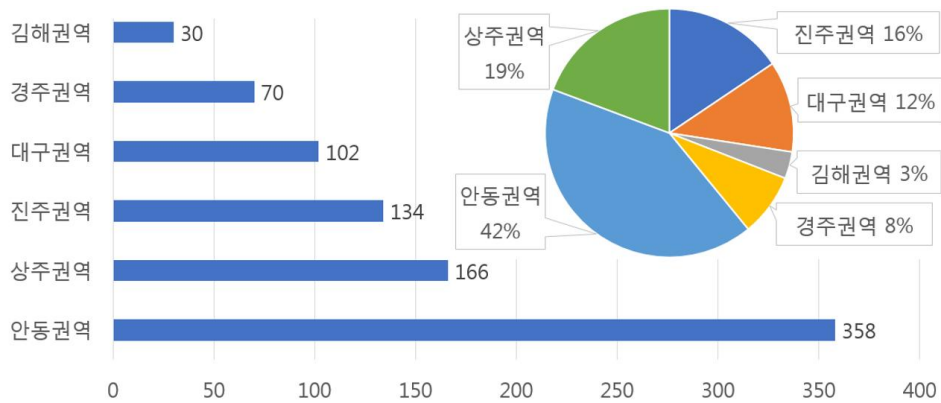
- 안의**(0명/7명)
단성(8명/14명) 문익점, 이원, 김후, 김준손, 김담, 김경근, 이도남, 이영
대구(8명/28명) 채귀하, 채영, 이지영, 도성유, 도여유, 광용, 최동률, 박진인
칠곡(3명/5명) 송원기, 송명기, 송이석
영주(11명/40명) 김철, 김정한, 박종무, 김증, 김우익, 배유장, 김시빈, 박성범, 송복원, 권득, 박시룡
용궁(20명/33명) 안승중, 안경빈, 안직, 안몽징, 안도징, 전원발, 전인, 전몽정, 전행, 전이성, 김광제, 강제, 강우, 강상선, 정귀령, 정사, 정빈, 정광필, 정지집, 류종윤
김산(3명/7명) 여문화, 배시량, 배상유
삼가(5명/10명) 문극렬, 문여녕, 문경충, 허소율, 박창도
현풍(1명/4명) 원개
신녕(0명/3명)
풍기(2명/6명) 황입영, 김광엽
군위(1명/9명) 탁광무
초계(4명/14명) 정백빙, 전영우, 류매근, 류부
함안(8명/24명) 조임기, 조수천, 조단, 조형도, 조익성, 조경환, 조석정, 이칭
문경(3명/6명) 김낙춘, 남영, 김육
영양(0명/1명)
사천(0명/1명)
하동(1명/1명) 최극수
창녕(9명/14명) 성송국, 성사재, 성승, 성삼문, 성담수, 성수침, 성수중, 성운, 성제원
예천(10명/38명) 김태일, 장진, 신명지, 신응지, 신성, 김남일, 이상룡, 박정기, 박정설, 신숙
산청(2명/4명) 박문영, 오한
고령(2명/6명) 이서, 박계조
함창(5명/10명) 광수인, 채헌징, 권광, 권보, 권성
자인(1명/1명)
의령(9명/28명) 강서, 광이상, 광이후, 광영희, 광이창, 광의창, 광홍지, 광정, 광유창
함양(10명/23명) 강명세, 강겸후, 강관후, 강인후, 정수민, 박맹지, 양희, 하맹보, 정사고, 강응황
거창(4명/7명) 이서하, 정습인, 정준, 홍천뢰
의홍(0명/3명)
인동(1명/9명) 장학
영산(3명/11명) 신사천, 배대유, 이숙
고성(1명/3명) 제명철

봉화(11명/23명) 금의, 정경, 금오, 금응석, 박승간, 김정현, 금제순, 금상현, 박승준,
 금봉주, 금봉휘
 진보(2명/4명) 신종위, 신기
 동래(0명/1명)
 김해(0명/2명)

『영남인물고』 권1부터 권15까지는 57개 고을 860명(중복인물 3명 포함)을 수록하고 있으며, 중복 인물을 제외하면 857명이다.³⁸⁾ 인물명에 부기한 경우와 인물 전기류 뒤에 부기한 경우까지 합하면 수록 인물은 좀 더 많아진다. 총목은 附記한 인물을 제외하면 권별로 수록한 859명의 명단을 각각 1행씩 기재한 인물 목록이다. 용궁현의 鄭蘭宗(권10-41)은 총목에는 없지만, 본책에 실려 있는 인물이다. 김완은 경주부(권6-14)와 영천군(권9-14), 김종무는 상주목(권4-48)과 선산부(권11-50), 정사현은 진주목(권8-15)과 고령현(권13-34)에 실려 있다.

총목에서는 시호를 표시한 인물이 76명이며, 최종 관직을 표시한 경우가 44명이고, 증직을 표시한 경우가 32명이다. 관직이나 무과·생원·진사를 표시한 경우가 717명이며, 표시가 없는 경우는 143명이다. 관직을 표시한 경우는 664명이다. 실직을 표시한 경우는 519명으로, 정1품 19명, 종1품 7명, 정2품 36명, 종2품 52명, 정3품 82명, 종3품 38명, 정4품 15명, 종4품 24명, 정5품 42명, 종5품 17명, 정6품 38명, 종6품 64명, 정7품 6명, 종7품 2명, 정8품 3명, 종8품 1명, 정9품 11명, 종9품 73명이다. 사후 받은 증직을 표시한 경우는 145명으로 정1품 16명, 종1품 7명, 정2

38) 『영남인물고의례』에는 858명을 수록한 것으로 나온다. 『嶺南人物考義例』 “得八百五十八人”: 김문식은 규장각본 전10권 19개 지역 543명의 명단을 제시하면서, 정조가 편찬을 담당할 관리로 임명한 사람에서도 누락된 이가 많으며 缺本으로 판단하였다. 김문식, 2007 앞의 책, 447-449면; 김백철은 『영남인물고』의 수록 인물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판본별로 인원수가 상이하더라도, 다음백과 515명, 규장각한국학연구원 533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 541명, 강주진 578-655명, 이수건 655명을 제시하였다. 각 기관이나 개인의 해제류에 대해 ‘판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유일본인 『영남인물고』가 여러 종의 판본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규장각본인 1-10권에는 부기한 인물을 제외하면 543명이 분명하며, 부기한 인물까지 포함하면 655명에 이를 수도 있다. 김백철, 앞의 논문, 185면 주 88) 참고.



〈그림 4〉 권역별 수록 인물(명)

품 38명, 종2품 21명, 정3품 45명, 정5품 6명, 종5품 4명, 정6품 2명, 종6품 5명, 종8품 1명이다. 생원 7명, 진사 45명, 무과 1명이다.

〈그림 4〉는 『영남인물고』 수록 인물의 권역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1798년 8월 정조의 명으로 김희락은 상주의 정종로, 경주의 이정덕, 선산의 박천건, 안동의 호계서원과 예안의 도산서원에 글을 내려 1개월 안에 선현의 문적을 모아 올리도록 하였다.³⁹⁾ 수록 인물이 주로 안동권역과 상주권역에 치우친 이유이다. 그리하여 이 책에는 경상도 남인 인물들이 주로 수록된 것이 사실이다. 총목과 본책에는 초목에 없던 148명(중복 포함)이 실려 있는데,⁴⁰⁾ 총목은 본문을 완성하고 성책한 뒤에 작성한 것이다. 초목에 없던 정사현은 진주와 고령 두 개 고을에 실려 있다. 〈표 1〉은 『영남인물고』의 구성과 수록 인물을 정리한 것이다.

39) 金熙洛, 『故寔』 권5, 奎章閣記注筵說.

40) 『영남인물고』 초목에 없던 인물(148명): 안동 36명, 상주 10명, 예안 4명, 군위 1명, 경주 8명, 밀양 3명, 성주 4명, 진주 8명, 자인 3명, 영천 3명, 대구 5명, 영주 4명, 용궁 1명, 예천 1명, 선산 3명, 하동 1명, 순흥 2명, 영해 9명, 개령 1명, 영덕 1명, 산청 1명, 합천 1명, 함창 1명, 단성 2명, 고령 4명, 지례 2명, 창원 2명, 초계 1명, 울산 1명, 동래 1명, 문경 2명, 영산 2명, 비안 2명, 김산 2명, 칠곡 3명, 창녕 2명, 의령 5명, 함안 5명, 삼가 1명.

〈표 1〉 『영남인물고』의 구성과 수록 인물

권	고을	계	수록 인물
1	안동1	47	김제, 김주, 김자수, 배상지, 권정, 김수, 정옥량, 김효정, 하위지, 류의손, 권희맹, 류승조, 김용석, 문경동, 권주, 이종준, 이흥준, 김시좌, 권벌, 류공탁, 권예, 권응정, 권응창, 김진, 김희삼, 권진, 홍인우, 류중영, 류경실, 류빈, 김언기, 김팔원, 김우평, 구봉령, 권호문, 배삼익, 김수일, 정유일, 이공, 김명일, 이정률, 류중업, 김극일, 권춘란, 류운룡, 김우용, 김면
2	안동2	37	류성룡, 남치리, 금윤선, 김성일, 정사성, 류종개, 홍적, 류복기, 김득연, 류용길, 이형남, 김윤, 정사신, 류복립, 김집, 김윤안, 권익창, 이광후, 권강, 권희인, 권태일, 이대일, 이창후, 류여, 홍성해, 류진, 류의남, 김시권, 김시추, 남업, 류원경, 남해준, 장홍효, 권기, 김시은, 김휴, 정시
3	안동3	57	류원지, 류직, 남천한, 송적, 김임, 류천지, 남천두, 김방걸, 이유장, 이시선, 류정휘, 김여만, 류기, 이지, 류세명, 이선, 류원정, 김성구, 권두인, 이동표, 김세홍, 류후장, 이완, 이동완, 김구성, 김세호, 변극태, 권두경, 권두기, 김여건, 이인부, 권덕수, 권구, 이광정(李光庭), 김양현, 류승현, 이산두, 김성탁, 권만, 권업, 김경은, 류관현, 김박, 김명기, 김정한, 김강한, 류정원, 김낙행, 권정철, 이상정, 이광정(李光靖), 류도원, 이종수, 류장원, 김시기, 배상설, 김승덕
4	상주1	65	황희, 노승, 노덕기, 권정, 윤사석, 강형, 홍언충, 이언, 김구, 김순고, 황효현, 신잠, 신륵, 왕희걸, 김언건, 김범, 김충, 노수신, 강사상, 성윤해, 정국성, 갈사필, 송량, 김담수, 강서, 김홍민, 강신, 김각, 노대하, 강연, 권우, 고상안, 강인(姜綱), 조정, 조익, 김홍미, 이전, 이준, 조우인, 김광두, 강응철, 정기룡, 정경세, 전식, 고인계, 조광벽, 권길, 김종무, 노도형, 김정건, 조희인, 조우신, 홍호, 전극향, 김추임, 노도응, 노준명, 채득기, 조수익, 한국창, 강용량, 이구, 조정항, 정도응, 홍여하
	상주2	13	김해, 열행걸, 손만응, 남후, 류항, 이만부, 홍대구, 권상일, 황익재, 노계원, 강항, 김희보, 고유
5	예안	37	금유, 금이영, 이우, 이식, 이현보, 김연, 이종량, 김생명, 이해, 이환, 박사희, 김부필, 김부인, 이숙량, 김택룡, 김부의, 금보, 오수영, 조목, 윤의정, 금응협, 금난수, 김부륜, 금응훈, 이안도, 김기, 김해, 임홍, 이영도, 이흥중, 김령, 김광계, 이명익, 이찬한, 김휘세, 김동준, 이세태
	군위	9	옥고, 권부, 탁신, 권자신, 이진, 이보, 홍위, 장해빈, 박한남
	영양	1	조덕린
6	경주	33	서유, 한권, 손소, 이변, 손중돈, 이언적, 이언팔, 이을규, 김세량, 조한보, 이응춘, 권덕린, 이응인, 김완, 김호, 김응택, 문위, 권사악, 이승금, 권사민, 최분천, 권복홍, 김석수, 이희룡, 이팽수, 최진립, 이눌, 정극후, 김종일, 손종로, 이열, 한여유, 손덕승
	밀양	19	이행, 이신, 손조서, 김숙자, 안원경, 김중직, 형사보, 이태, 조광익, 손처눌, 손기양, 이광진, 손린, 김태허, 노계방, 박양춘, 박율(朴奭), 안명하, 이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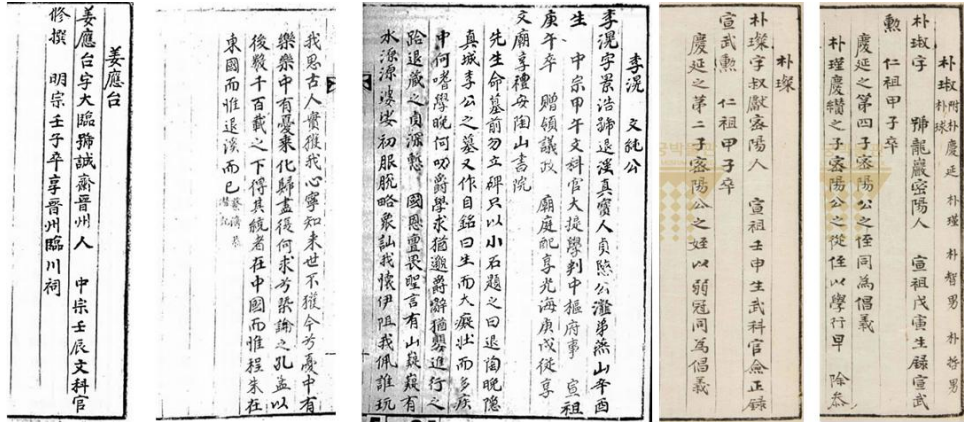
	신녕	3	권응수, 권응심, 이온수(초목에는 이온)
7	성주	35	이승인, 이지, 도응, 정종, 김자강, 김문기, 김맹성, 정근수, 정구(鄭述), 도형, 여회립, 송희규, 홍계현, 김관석, 송사이, 이흥기, 박이현, 박전, 시문용, 이서, 이천봉, 이승, 김천택, 최항경, 김주, 장봉한, 김졸, 이언영, 이윤우, 배상룡, 박영서, 정유영, 이주, 이정현, 김귀열
	의성	20	김광수, 이세현, 신원록, 이광준, 김사원, 신희, 신지제, 김치중, 신지효, 이민성, 이민환, 신적도, 신열도, 이홍조, 이이승, 김상원, 신희망, 신달노, 김이구, 김종덕
8	진주	42	하연, 정은, 하륜, 하경복, 강숙경, 강문희, 하윤, 정석건, 정봉, 강현, 유백운, 박기, 강응태, 조식, 정사현, 이제신, 오건, 정두, 최영경, 김대명, 이담, 하향, 하천주, 하응도, 류종지, 성여신, 진극경, 하수일, 강덕룡, 최기필, 하징, 오장, 박민, 하경휘, 박안도, 박인, 한몽삼, 하홍도, 하진, 정의(정위), 한범석, 박태무
	함양	10	조승수, 노숙동, 표연말, 양관, 유효인, 정여창, 노우명, 강한, 노진, 강익
	자인	4	이양소, 최문병, 송희달, 김응명
9	영천	30	이갑, 류방선, 이맹진, 조상치, 윤금, 안구, 조치우, 김응생, 박순, 정세야, 손덕침, 안여경, 조호익, 김완, 김연, 정의변, 정사진, 정대임, 안신, 안숙, 안상한, 정호인, 권묵, 이형상, 정만양, 정규양, 정증기, 권득중, 장간, 조봉구
	대구	25	양희지, 서침, 박한주, 이영, 박신, 전경창, 서사원, 최계, 최인, 정사철, 최동보, 채응린, 채몽연, 채선건, 박수춘, 채무, 서시립, 최동집, 도경유, 도신수, 도신징, 박몽정, 이익필, 조춘경, 최흥원
10	榮川 [영주]	38	정척, 김이음, 송인창, 김담, 정성근, 송석충, 김양진, 황효공, 김난상, 장수희, 박승임, 오운, 김륙, 이덕홍, 권두문, 배응경, 김대현, 이개립, 김개국, 민응기, 김용, 이정현, 성안의, 박희무, 신현, 김여엽, 김영조, 배상익, 김응조, 성이성, 이십, 권창진, 김익희, 정언숙, 나이준, 이유희, 장진, 김철
	용궁	14	안준, 정응, 정난중, 이문홍, 이구, 반충, 강응청, 장한보, 강여성, 이설, 김희, 정영후, 정영방, 전오륜
	하양	2	허조, 김시성
	진보	2	신지, 신예남
11	예천	31	조용, 윤상, 권산해, 권오복, 문근, 문관(문권), 권오기, 태두남, 권장, 신달정, 박종린, 김경언, 이유, 정탁(鄭琢), 이희, 권문해, 정윤우, 김복일, 권육, 이광윤, 박운, 박수서, 정윤목, 정언평, 박수근, 김곤, 김주, 김해일, 권용, 정육, 박손경
	선산	26	박호문, 김취문, 김응기, 강백진, 이수공, 황필, 정희량, 박연, 김취성, 박운, 강유선, 노수함, 고응척, 김번, 길희, 최현, 김녕, 박수일, 김종무, 노경임, 정기원, 김광악, 홍준형, 정영, 노계정, 김경중
	사천	1	이정
	하동	1	최탁

12	순흥	28	안순, 이보흠, 서한정, 금성대군, 유당, 이수형, 권득평, 박선장, 금인, 안명세, 안응일, 황언주, 이여빈, 권호신, 황중연, 안덕린, <u>홍이성</u> , 남몽오, <u>홍익한</u> , 홍우정, 김강, 박천주, 배진구, 권윤석, 김약해, 황수일, 김홍제, 서창재
	풍기	3	황준량, 황섬, 팍진
	봉화	11	금취, 금원정, 금의, 금뉴, 금의순, 김중청, 금원복, 권사은, 금시양, 금성규, 정탁(鄭鐸)
	영해	16	<u>박종문</u> , 신희, <u>이맹현</u> , 신종부, 박의장, 박홍장, 신규년, <u>이시명</u> , 남길, <u>남경</u> , 권상일, 박호, <u>이휘일</u> , <u>이승일</u> , <u>이재</u> , <u>이만</u>
	의흥	1	홍로
	개령	1	<u>이복(이하)</u>
	영덕	1	<u>김하구</u>
	거창	1	정영진
	산청	1	<u>민안부</u>
13	합천	17	이양재, 주이, 주세봉, <u>박소</u> , 신계성, 박이장, 문려, 문경호, 조정인, 류세훈, 김두남, 강익문, 주국정, 강대수, 심자광, 김팔거, 조한유
	합창	6	홍귀달, 채수, 권달수, 채무일, <u>류종인</u> , 팍수지
	단성	8	이적, 이광우, <u>이조</u> , 이천경, <u>이경근</u> , 권도, 권극량, 류지원
	고령	7	<u>박은</u> , <u>오언의</u> , <u>정사현</u> , 김수웅, 박택, 박정변, <u>박정완</u>
	지례	2	<u>이승원</u> , <u>이숙기</u>
	창원	5	<u>최윤덕</u> , 구종길, 조치후, 조효연, <u>김명윤</u>
	초계	11	변중량, 변계량, 이윤검, 변벽, 이희증, 이희민, <u>변옥희</u> , 이희안, 이대기, 전치원, 이윤서
	김해	2	김계금, 송빈
	울산	3	<u>조이춘</u> , 이에, 서인충
	양산	2	이징옥, 백수희
	고성	2	제말, 제홍록
동래	2	<u>양조한</u> , 신기운	
14	문경	5	신숙빈, 정언신, 심대부, 신후명, <u>신필정</u>
	인동	8	장안세, 박원형, 장제, 장현광, 장사진, 장경우, 장응일, 신익항
	영산	10	이중, <u>이석경</u> , 노필, 배학, 신초, 이후경, 이도자, 이도보, 신몽삼, <u>신경하</u>
	비안	6	박의중, 박서생, 이세인, <u>박사숙</u> , <u>박충인</u> , 박효순
	김산	6	<u>여응근</u> , 배홍립, 여대로, 정일, 배순명, <u>강여호</u>

	철곡	4	정추, <u>이원경</u> , <u>이도장</u> , <u>이원정</u>
	청도	17	이원, 김극일, 김맹, 김준손, 김일손, 김대유, 박경신, 박경인, 박경전, 박하담, 박경윤, 이운룡, 박경선, 박선, 박찬, 박우, 박숙
	창녕	6	이승언, 이장근, <u>노극홍</u> , 김정철, <u>윤남룡</u> , 양훤
15	안의	11	정구(鄭矩), 전오륜, 정옥견, 임훈, 임운, 정유명, 유명개, 정용, 정은, 박명부, 윤응석
	의령	24	안도, <u>안우</u> , <u>곽안방</u> , <u>곽승화</u> , <u>곽지운</u> , <u>곽월</u> , <u>곽간</u> , <u>곽윤</u> , 이로, <u>안극가</u> , <u>곽규</u> , <u>곽준</u> , <u>곽근</u> , <u>강우</u> , <u>곽재우</u> , <u>강수남</u> , <u>안기중</u> , <u>곽재걸</u> , <u>곽걸</u> , <u>이만승</u> , <u>곽유</u> , <u>허의</u> , <u>곽수강</u> , <u>곽세건</u>
	함안	21	조려, <u>안관</u> , <u>안택</u> , 이교, 박제인, 조봉, 조종도, 조준남, 조신도, 조민도, 조방, 조응도, 박진영, 이휴복, 조익도, <u>조광렬</u> , <u>조계선</u> , <u>조임도</u> , <u>조선도</u> , <u>이경무</u> , <u>이경번</u>
	삼가	7	홍재, 문익창, 노흠, 이흠, 박천우, <u>정구룡</u> , 문계달
	현풍	3	김평필, 배신, 박성
계	57개 고을	860명	*밑줄 친 147명(정사현 중복)은 초목에 없던 인물이다. **거제부, 경산현, 곤양군, 기장현, 남해현, 언양현, 연일현, 웅천현, 장기현, 진해현, 청송부, 청하현, 칠원현, 흥해군 14개 고을은 수록 인물이 1명도 없다.
	총목		‘영남인물고권지일목록’ 안동 ‘지군사총개공 김재 향안동쌍절사’부터 ‘영남인물고권지십오목록’ 현풍 ‘부사 박성’까지 860명(누락한 권10-41 용궁의 익혜공 정난중 포함)의 관직, 서명, 향사처를 1행씩 기재
	초목		경주 ‘이종준 성묘조 대사성 용재’부터 김해 ‘송빈 가정임인생 임란매적이사 증공의’까지 1,078명의 성명, 생년, 주요행적, 관직을 1행씩 기재

4. 수록 인물 검토

김희락의 기록에 의하면, 1798년 10월 9일, 체제공이 총괄하여 5일 안에 완성하라는 정조의 지시에 따라 10월 10일에 시작하여 12일에 『영남인물고』 편찬을 완료하였다. 『영남인물고』는 인물마다 별개의 용지를 사용하였으며, ‘1000여 권(명)’에 이르는 영남문적에서 초출하여 첫 행에는 성명을 적고, 다음 행에는 각 인물의 자, 호, 본관, 간략한 가계, 과제, 관력, 생년, 졸년 및 향년, 배향, 증시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적었다. 이어서 비갈문·행장·언행록·제문 등 전기류를 발췌하



〈그림 5〉 『영남인물고』에 수록된 강응태·이황·박찬·박숙의 기록

여 수록한 뒤 전거를 밝혔다.⁴¹⁾ 인적 사항은 1행에서 7행(류성룡, 안동, 권2-1)까지이며, 평균 2.4행이다.

『영남인물고』 수록 인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인물을 분류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기류는 0행(강응태, 진주, 권8-13)부터 282행(류성룡, 권2-1)까지이며 평균 14.7행이다. 김성일(234), 이언적(156), 김우옹(98), 김영조(98), 최영경(96), 권벌(88), 정은(74), 정근수(71), 권응수(71), 조식(70), 이준(65), 이동표(63), 정구(63), 정경세(62) 순이다. 류성룡은 정경세가 찬술한 시장과 『서애집』에서 발췌한 글을 실었으며, 김성일은 정구가 찬술한 행장과 『용사일기』의 일부를 수록하였다. 정은·이준·정경세는 비문, 나머지는 행장이다. 증영의정 문원공 이언적 행장은 156행, 증좌의정 충정공 권벌의 행장은 88행이다. 체제공이 쓴 증영의정 문순공 이황의 潛記는 9행에 불과하다. 朴雲(附子灑·演, 선산, 권11-41)은 아들까지 부기하였는데, 이황 찬 갈(12행), 『동유록』(12행), 이이의 『격몽편』에 실린 발(3행), 아들인 박호와 박연의 행록(5행)으로 구성하였다.

청도의 박경신(14-46), 박경인(47), 박경전(48), 박경윤(50), 박경선(52), 박선(53), 박찬(54), 박우(55), 박숙(부 박경연 박근 박지남 박철남 박구, 56)은 밀양박

41) 신승운, 앞의 논문, 245면 참고.

씨 소고당 문중 인물이며, 13명은 박하담(49)의 손자와 증손자이고, 박근은 박하담의 동생인 박하처의 증손이다. 11명은 임진왜란 창의 과정에 합류하여 선무원종공신으로 녹훈되었으며, 이괄의 난 때 공을 세워 진무원종공신에 녹훈된 박우와 순절한 박경인과 박경선이다. ‘14의사’는 후손들에 의한 현창 사업으로, 1794년과 1797년에 각각 조채신과 경산현령 유규의 서문을 받아 『충효록』을 편간하였던 사정과 이 집안이 향촌 사회를 주도하였던 위상과도 관련이 있다. 『충효록』은 1823년 『박씨충효록』, 1867년 『십사의사록』 간행으로 종결되었다. 『십사의사록』에서는, 제1의사 박경신·2박경전·3박경윤은 倡義三忠, 4박경인·5박경선·6박우는 殉義三忠, 7박린·8박근·9박지남·10박찬·11박선·12박숙·13박철남·제14의사 박구는 擧義八士로 분류하였다.⁴²⁾

경상도 71개 고을 가운데 57개 고을이 1명 이상의 인물을 수록하였으며, 14개 고을은 수록 인물이 없다. 손처눌은 대구에서 생활하였지만, 밀양에 실려 있다. 의령현에는 24명을 수록하였는데, 초목에 실린 28명 가운데 강서·곽이상·곽이후·곽영희·곽이창·곽의창·곽홍지·곽정·곽유창 9명은 수록하지 않았다. 이로·강우·안기중·강수남·이만승 5명과 현풍곽씨 14명은 초목에 있던 인물이며, 안도·안우·안극가·곽재겸·허의 5명은 초목에 없던 인물이다. 의령현 수록 인물 24명 가운데 15명이 현풍곽씨이다.

1786년(정조 10)에 편찬한 『의령현읍지』에는 현풍곽씨 가운데 곽재우만 실려 있으며, 곽재겸은 『대구부지』(1786)에 실려 있다. 『현풍현읍지』에는 곽안방·곽승화·곽지운·곽월·곽간·곽율·곽규·곽준·곽재우·곽결·곽유는 물론, 임진왜란 때 아버지를 살리려다 희생된 효자 곽결·곽호·곽청·곽경 4형제도 실려 있다.⁴³⁾ 1841년(헌종 7)에 편찬한 『현풍현읍지』에는 곽근·곽수강·곽세건도 실려

42) 박홍갑, 2020 『임란공신 박경신과 창의일록』, 주류성, 161-178면.

43) 『慈仁縣誌』(今西博士蒐集 마이크로フィルム版 朝鮮史原本コレクション 111권), 『慈仁誌 附 英陽·昌寧·宜寧·河陽』 292.1-夕293), 『大邱府誌』(6권), 『大邱誌』, 292.1-夕133), 『高麗縣邑誌』(74권), 『高靈誌 附 玄風·山淸』 天理大學 2921-夕121); 1786년에 편찬한 『경상도읍지』에 대해서는 이재두, 2019 「1786년 편찬한 이마니시문고 『경상도읍지』의 분석과 그 의미」, 『동방학지』 188, 69-106면을 참고할 것.

있다.⁴⁴⁾ 광재우는 현풍과 의령 두 고을에 모두 실려 있지만, 『현풍현읍지』에는 비판에 ‘충익공곽재우 신도비명병서’ 전문을 수록하였다. 『현풍현읍지』 비판에는 ‘문경공 김굉필 신도비명병서’, ‘증예조판서 곽월 신도비명병서’, ‘충렬공 곽준 신도비명병서’도 실려 있다. 『영남인물고』 현풍현에는 김굉필·배신·박성 3명만을 수록하였다.

『영남인물고』 전기류의 찬자를 보면, 이광정이 45명 620행 평균 13.8행, 채제공이 43명 1,135행 평균 26.4행, 허목은 37명 814행 평균 22행, 이상정은 20명 226행 평균 11.3행, 김응조는 19명 167행 평균 8.8행, 이황은 16명 367행 평균 22.9행이다. 읍지 기록이 24명 148행 평균 6.2행이며, 김육의 『해동명신록』에서 발췌한 인물이 12명 154행 평균 12.8행이다. 남인계 영수였던 허목과 채제공이 일찍부터 영남의 명가(名家)들과 문자의 교환을 통해 깊은 친분을 맺고 있었던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상정은 李光庭(1674~1756)을 “글에 있어서 날카로운 칼날을 감추고, 순박하며 단아하게 말의 이치가 갖추어지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장과 비문을 짓고자 하면 반드시 그에게 부탁하였는데,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글을 부탁하니 언제나 글을 담는 상자가 가득 넘쳤다.”라고 하였다.⁴⁵⁾ 『訥隱集』은 1779년(정조 3) 이상정과 이광정(李光靖) 등 제자들이 주도하여 21권으로 편집한 것인데, 권11~권19에는 비명 11편, 묘표 1편, 묘갈명 37편, 묘지명 12편, 행장 35편, 유사 6편, 전 7편이 실려 있다. 대상 인물은 15세기에서 18세기 전반까지 망라되어 있는데, 그의 문장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높은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⁴⁶⁾ 『눌은집』 권22 부록에는 이상정이 지은 행장과 이현경이 지은 묘지명이 실려 있지만, 『영남인물고』 권3-34에는 채제공이 찬한 세마 이광정 갈(36행)을 수록하였다.

『영남인물고』에서 생몰 시기가 잘못 기재된 경우는 바로 잡고, 생몰 시기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나 잘못 기재한 경우는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

44) 『현풍현읍지』(국립중앙도서관 고2752-4).

45) 장운수, 2013 『경북 북부지역의 성리학-퇴계에서 대산까지』, 심산, 575면.

46) 위의 책, 581-582면.

다. 『영남인물고』 기재 내용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및 각종 서적과 인터넷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 생몰 시기가 불분명한 인물을 생년이나 몰년 및 부자·형제 관계, 과거 급제나 관직 등의 시기를 바탕으로 추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생 시기를 추정한 인물이 57명(6.6%)이다. 14세기 18명, 15세기 18명, 16세기 18명, 17세기 2명, 18세기 1명이다. 사망 시기를 추정한 인물은 53명(6.2%)이다. 14세기 3명, 15세기 21명, 16세기 14명, 17세기 12명, 18세기 3명이다.

안동의 김극일(권1-43)은 金璣(1500~1580)의 첫째 아들인데, 『영남인물고』에는 1539년(중종기해생)에 태어나 1602년(선조임인졸)에 사망한 것으로 나온다. 『영남인물고』에는 김진의 아들 5형제가 모두 실려 있는데, 동생인 김수일(1528~1583), 김명일(1534~1570), 김복일(1541~1591)보다 늦게 태어난 것으로 기재하였다. 김성일(안동, 권2-4) 또한 동생인 김복일보다 늦은 1545년생으로 기재하여 류성룡(안동, 권2-1, 1542~1607)보다 늦게 태어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김극일은 1522년(중종 17), 김성일은 1538년(중종 33)에 태어난 인물이다. 초목에는 김극일이 의성에 실려 있는데 ‘가정임오생 문과 사정 약봉’이라 기재하여 1522년생임을 알 수 있다. 김극일·김수일·김성일·김복일은 『陶山及門諸賢錄』에도 수록되어 있다. 대구의 이익필(권9-53)은 1674년(肅宗甲寅生)에 태어나 1786년(英宗 … 丙午卒)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채제공의 이익필 신도비명을 보면 1751년 78세에 사망한 인물이다.⁴⁷⁾

『영남인물고』에서 생몰년을 수정하고 추정한 경우를 포함하여 생몰년을 시기별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4세기에 출생한 인물이 61명(7%), 15세기 162명(19%), 16세기 479명(56%), 17세기 134명(15%), 18세기 24명(3%)이다. 1324년에 태어난 인물부터 1759년에 태어난 인물까지 435년간이다. 진주의 정운(권8-2)은 1324년에 태어나 1402년에 사망한 인물이며, 안동의 배상열(권3-56)은 1759년(영조 35)에 태어나 1789년(정조 13)에 사망한 인물이다. 14세

47) 邱鄉會, 2017 『大邱儒賢錄』 2, 대보사, 433면.

기에 사망한 인물이 7명(1%, 추정 3명 포함), 15세기 99명(11%), 16세기 307명(36%), 17세기 343명(40%), 18세기 104명(12%)이다. 1392년(태조 1)에 사망한 성주의 이숭인(권7-1)과 의흥의 홍로(권12-59)는 조선 건국에 반대한 인물이다. 안동의 이종수(권3-53)는 1722년(경종 2)에 태어나 1797년(정조 21)에 사망하였고, 의성의 김종덕(권7-55)은 1724년(경종 4)에 태어나 1797년에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의 연령을 보면 10대가 1명(실제는 4명), 20대가 15명, 30대가 48명, 40대가 105명, 50대가 170명, 60대가 242명, 70대가 179명, 80대가 84명, 90대가 14명, 100대가 2명이다. 사망 당시 평균 연령은 61.9세이다. 의령의 광결·광호·광청·광경(권15-30)은 1건이지만 실제는 4명이다. 임진왜란 당시 병든 아버지를 보호하다가 일본군에게 희생된 현풍의 4효자로 사망 시기는 10대를 전후하였을 것이다. 상주의 조정항(권4-63)은 1617년(光海丁巳生)에 태어나 1638년(仁祖 ... 戊寅卒) 2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영주의 정언숙(권10-34)은 104세(1600~1703), 영해의 신희(권12-44)는 101세(1426~1526)까지 살았다.

『국조인물고』와 달리, 『영남인물고』는 고을별로 분류하였으며, 조선 건국을 반대하며 충절과 의리를 지킨 고려 말의 충신을 가장 먼저 수록하였다. 『국조인물고』에서는 『영남인물고』에 실린 184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 2,091명의 8.8%이다. 『국조인물고』는 원래 74권 74책이었는데, 권4와 권7은 분실하였다. 『영남인물고』에 실려 있는 문경공 김굉필, 문헌공 정여창, 문원공 이언적, 문순공 이황도 원래는 『국조인물고』 권7에 실렸겠지만, 현재 권7은 분실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는다.⁴⁸⁾ 『국조인물고』의 권43 연산시이화인 曹偉, 권45 기묘 당적인 權碩, 권47

48) 권1부터 권3까지는 상신인데, 권3의 마지막 인물인 한홍일이 효종대에 우의정을 역임한 인물인 점을 고려하면, 권4는 효종대와 그 이후의 상신을 수록하였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권8부터 권10이 유학인데, 박영(1471~1540)·김안국(1478~1543)·이자(1480~1533)·김식(1482~1520) 순으로 수록한 것을 보면 권7도 유학에 해당하며, 이 네 인물은 권7에 수록된 인물이었음이 분명하다. 민현구, 1999 『『국조인물고』 해제』, 『국조인물고』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3)-(14)면 참고: 김육이 편찬한 『해동명신록』은 권1에 설총·최치원·최충·안유(안향)·정몽주·吉再·김숙자·김종직·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이이·성수침·성혼·서경덕 등의 순으로 수록하였다. 그런데 『국조인물고』에는 김종직만 권43 燕山時罹禍人에 실려 있고, 나머지 인물은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

을사 이후 이화인李文樞, 권54 왜란시 입절인 河洛, 속고4 휴일 洪可臣은 경상도 인물이지만 『영남인물고』에 실리지 않았다. 『영남인물고』 초목에 안동의 류성룡, 상주의 정경세, 예안의 이황이 실리지 않은 것을 보면, 담당자에 따라서는 수록 인물을 선정할 때 『국조인물고』에 수록된 인물들을 배제하기도 한 듯하다. 그리하여 길재·김숙자·조위는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국조인물고』는 1739년(영조 15)에 사망한 趙正萬(속고5-15에 수록)까지 포함하고 있다.⁴⁹⁾ 『영남인물고』는 거의 60년 뒤인 1797년에 사망한 안동의 이종수(권3-53)와 의성의 김종덕(권7-55)까지 포함하고 있어 대상 시기가 일치하지는 않는다.⁵⁰⁾ 『영남인물고』 수록 인물들은 18세기 말 영남 지역 각 고을에서 사족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던 가문에서 현창하고 있던 충신·효자·관료·학자이다. 張海濱(권5-58)과 施文用(권7-19)은 임진왜란에 참전하였다가 난 후에 조선에 귀화한 인물로 임진왜란 이후 군위와 성주에 정착한 인물이다. <표 2>는 『영남인물고』에 실려 있는 인물 가운데 『국조인물고』에서 확인한 인물들이다.⁵¹⁾

<표 2> 『국조인물고』와 『영남인물고』에 모두 수록된 인물

『국조인물고』			『영남인물고』	
연번	분류	계	계	수록 인물(『국조인물고』 수록순)
1	相臣(권1~권3, 속1)	59	9	하륜, 이원, 황희, 허조, 박원형, 김응기, 정언신, 류성룡, 정탁
2	國戚(권5~권6, 속1)	79	0	
3	儒學(권8~권10, 속1)	55	20	박영, 김구, 조식, 정구, 장현광, 배신, 오건, 강익, 조목, 고응척, 이덕홍, 조호익, 김취성, 박운, 임훈, 홍인우, 임운, 서사원, 정경세, 정극후

조인물인 길재와 김숙자 등도 결본인 『국조인물고』 권7에 실렸을 가능성이 크다.

49) 민현구, 앞의 해제, (4)면.

50) 『영남인물고』를 보면, 안동의 이종수(권3-53)는 1722년에 태어나 1797년에 사망하였고, 의성의 김종덕(권7-55)은 1724년에 태어나 1797년에 사망하였다.

51) 위의 해제, (20)면 참고.

4	卿宰(권11~권21, 속2~속3)	306	22	정곤수, 안순, 변계량, 정척, 이승원, 김자수, 정난중, 손중돈, 盧禎(노진), 전식, 노숙동, 손소, 이우, 김연, 주세붕, 류경심, 김우용, 권태일, 김영조, 이민환, (속) 김륙, 성안의
5	名流(권22~권29, 속3~속4)	346	34	권희맹, 이정, 류중영, 김취문, 박승임, 박월, 김우평, 배삼익, 오운, 강서, 김홍미, 김용, 김종청, 이윤우, 이준, 홍호, 강익문, 김맹, 유희인, 이희증, 태두남, 조효연, 금의, 강응태, 황준량, 채무일, 홍적, 길희, 노경일, 이도장, 하진, (속) 이중량, 육고
6	文官(권30~권31, 속4)	98	7	심대부, 고인계, 강문희, 문경동, 이적, 김충, 박선장, 김주
7	武弁(권32)	40	0	
8	休逸(권33~권35, 속4)	103	12	조상치, 이현보, 신계성, 이희안, 정두, 최영경, 권호문, 권춘란, 김령, 하홍도
9	蔭仕(권36~권39, 속5)	187	15	류운룡, 이영도, 박을, 박성, 박제인, 문위, 이개립, 이진, 노흠, 권우, 김부필, 김부의, 이흠, 김시온, (속) 류방선
10	士子(권40~권42)	113	9	이식, 김광수, 정유명, 김극일, 배상룡, 남치리, 이승, 문계달, 정외(鄭顛, 정위)
11	莊光禪代立節人(권43, 속6)	20	4	이맹전, 하위지, 이보흠, (속) 금성대군
12	燕山時罹禍人(권44, 속6)	66	11	김종직, 홍귀달, 채수, 이세인, 김일손, 김양진, 권달수, 정희량, 박은, (속) 이수공, 홍언충
13	己卯黨籍人(권45~권46, 속6)	58	6	이윤검, 노우명, 문근, 김대유, 신잠, 박소
14	乙巳以後罹禍人(권47~권48, 속6)	45	8	권벌, 송희규, 이해, 권응정, 박순, 노수신, 안명세, 강유선
15	牛栗從游親炙人(권49~권53, 속6)	149	1	구봉령
16	倭難時立節人(권54~권55, 속6)	88	8	조종도, 권길, 권두문, 박준, 강수남, 박수일, 하경휘, (속) 박이현
17	倭難時征討人(권56, 속7)	34	9	김각, 김성일, 김면, 배홍립, 박재우, 김해, 정기룡, 이운룡, (속) 권응수
18	光海時立節人(권57, 속7)	15	0	
19	光海時罹禍人(권58~권59)	48	5	이대기, 홍위, 조우인, 홍우정, 강대수
20	癸亥擧義人(권60~권61, 속7)	30	0	

21	甲子死節勸難人 (권61)	13	2	이윤서, 박진영
22	虜難時立節征討人 (권62~권64, 속7)	77	4	최진립, 정은, 홍익한, 배명순(배순명)
23	甲寅以後罹禍立節人 (권65~권66, 속8)	61	0	
합계		2,091	184	8.8%(184명/2,091명)

『영남인물고』 수록 인물 가운데 『해동명신록』에 수록된 인물은 42명(전체 299명), 『국조명신록』 수록 인물은 45명(전체 366명)이다.⁵²⁾ 이 가운데 27명은 두 책 모두에 다 실려 있다.⁵³⁾ 하위지 충렬공·권별 충정공·홍인우·배삼익·류성룡 문충공·김성일 문충공·황희 익성공·김구 문의공·노수신 문간공·이현보 효절공·송희규·하연 문효공·정봉·유호인·노진 문효공·정성근·정난중 익혜공·허조 문경공·윤상·박영 문목공·홍귀달 문광공·채수·권달수·박원형 문헌공·김대유·정은 문간공·곽재우 충익공이다. 한편 『영남인물고』에는 『도산급문제현록』 수록 인물 309명 중 70명을 수록하였으며,⁵⁴⁾ 『덕천사우연원록』 수록 인물 중 75명

52) 金堉(1580~1658)은 2종의 '名臣錄'을 저술하였는데, 문묘에 배향한 설총·최치원·최충·안유(안향)·정몽주를 비롯하여 當代까지의 조선시대 역대 名臣 299명의 언행과 행적을 기록한 『海東名臣錄』(1652)과 조선시대 인물 366명의 언행과 행적을 수록한 『國朝名臣錄』(1652년 이후 편찬)을 남겼다. 우정임, 2016 「金堉의 『海東名臣錄』·『國朝名臣錄』 편찬과 사상적 의미」, 『영남학』 30, 157-158면 참고; 김육, 1977 『한국 사상대전집 20 海東名臣錄』, 동화출판공사.

53) 『해동명신록』에만 수록된 인물은 15명인데, 권춘란·이황 문순공·이언적 문원공·문위·최진립·김숙자·김종직 문충공·정구 문목공·하륜 문충공·조식 문정공·이계신·정여창 문헌공·이맹전 정간공·조호익·정희량이다. 『국조명신록』에만 수록된 인물은 18명으로, 이종준·구봉령·정경세 문장공·정근수 충익공·표연말·곽순·박한주·정척공대공·권오복·정탁 정간공·김응기 문대공·박운(부 자 호·연)·금성대군 정민공·홍익한 충간공·박은·최윤덕·김일손·이장곤인데, 박운은 아들인 박호와 박연을 부기하였다.

54) 『도산급문제현록』 수록순으로 인명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홍인우, 김언기, 김팔원, 김우평, 구봉령, 권호문, 배삼익, 김수일, 정유일, 류중엄, 김극일, 권춘란, 류운룡, 김우옹, 김면, 류성룡, 이희, 김집, 남치리, 김성일, 정사성, 홍적, 노수신, 권우, 김생명, 박사회, 김부

을 수록하였다.⁵⁵⁾ 증유한 이정·노수신·홍인우·배삼익과 문인 오건·정구·김우평·김우옹·임운·배신·이광우·김면·오운 및 사숙인 조임도 14명은 『도산급문제현록』에도 나오는 인물들이다. 특히 오건 등 문인 9명과 사숙인 조임도는 조식과 이황을 동시에 스승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영남인물고』에는 영남의 대표적인 양반 문중 99개 과의 과조 68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는 지역과 출신지가 거의 일치한다.⁵⁶⁾ 대체로 1450년대 이후에서 1690년대 이전에 살았던 인물들이다. 양반이라는 사회적 지위는 문중 단위로 획득되며, 일차적으로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드러난 조상’, 즉 顯祖를 가져야 한다.⁵⁷⁾ 각 문중의 직계 조상 중 15~17세기에 ‘드러난 조상’이

필, 김부인, 이숙량, 김택룡, 김부의, 금보, 오수영, 조목, 금응협, 금난수, 김부륜, 금응훈, 이안도, 김기, 이유, 조광익, 김사원, 정곤수, 정구, 오건, 조호익, 박신, 전경창, 김응생, 장수희, 박승임, 오운, 김륙, 이덕홍, 민응기, 김룡, 이정, 정탁, 권문해, 김복일, 박운, 고응척, 박수일, 이형남, 남몽오, 황준량, 이광우, 임운, 배신, 김종석 역, 2000 도산급문제현록, 『퇴계전서』 28, 퇴계학연구원, 91-455면, 원문영인은 29-127면.

- 55) 조식과 從遊한 인물이 16명으로 이언적·이황·김대유·박하담·신계성·임훈·곽순·이희안·김희삼·이정·노수신·노진·홍인우·이장곤·신륜·배삼익이다. 조식의 門人은 37명인데, 오건·정구·김우평·김우옹·이계신·임운·배신·송사이·강익·정탁·이광우·하항·박제인·이천경·이조·노흠·전치원·곽율·조종도·하응도·이로·김홍미·성여신·류종지·이대기·곽재우·진극경·하천주·김면·오운·정유명·박택·김담수·변옥희·김대명·정사현·박이현이다. 私淑人은 22명으로 정운·성안의·하수일·오장·김천택·최기필·강익문·권도·박인·박성·문위·하징·이윤우·배상룡·조임도·한몽삼·하홍도·강대수·하진·최탁·정외(위)·곽세건이 해당한다. 이상필·공광성 역주, 2011 『德川師友淵源錄』, 경인문화사, 1-353면.
- 56) 고인계, 권도, 권벌, 권오복, 권우, 권주, 금난수, 김관석, 김광수, 김굉필, 김담, 김대현, 김륙, 김부필, 김성일, 김연, 김우평, 김윤안, 김중칭, 김진, 김취문, 남후, 류복기, 류성룡, 류운룡, 박명부, 박승임, 박운, 박의장, 배삼익, 배응경, 손만응, 손조서, 손중돈, 송량, 송희규, 신지효, 여대로, 이덕홍, 이민환, 이서, 이수형, 이숙기, 이시명, 이시선, 이언영, 이언적, 이원정, 이유장, 이정현, 이태, 이팽수, 이해, 이황, 이후경, 장현광, 전치원, 정경세, 정구, 정극후, 정운, 정유일, 정탁, 조정, 조호익, 최동집, 최진립, 조강희, 2006 『영남지방 양반가문의 혼인관계』, 경인문화사, 135-138면.
- 57) 위의 책, 134면, 영남 지역의 현조는 각 문중의 중시조에 해당하는 이 고을 출신 15~17세기 인물들로, 관직은 대개 정3품 당상관 이상을 거치고 학덕을 갖추 서원에 배향되어 있고, 가묘에 입묘(入廟)되어 불천위(不遷位)로 받들어지는 사람들이다. 위의 책, 142-143면.

없는 경우는 14세기 인물인 문익점이나 심원부를 비롯하여 14~15세기 인물인 김담·최유경·박팽년·변계흠·손조서·서미생·남수·신개·안엄경(?~1453) 등까지 올라갔다. 김담과 손조서는 『영남인물고』에 수록되어 있으나, 생존 당시 경상도와 의 연고가 약했던 문익점·박광우·박팽년·서미성·신개·신숙주·심원부·이중경·최유경 및 김장생(1548~1631)과 한원진(1682~1751, 호서)은 제외되었다. 현조 중에는 출신지와 거주지가 경상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남인물고』에 실리지 못한 경우가 있다. 강각, 강흠, 권의, 김계행, 남몽뢰, 남수, 박려, 박창우, 변계흠, 성람, 안엄경, 윤섭, 이계양, 이말동, 이문룡, 이시청, 이원록, 정응두, 조덕순, 홍석이 해당된다. 이계양은 이황의 조부, 권의는 권벌의 형, 이시청은 이시명의 형, 이원록은 이원정의 동생이다.⁵⁸⁾ 한편, 강흠·성람·홍석의 후손들은 노론, 강각은 소론을 표방하였다. 『영남인물고』에는 실려 있는 이숙기·권도·김중청의 후손들은 점차 노론화한 집안이다.⁵⁹⁾

안동부의 아전이었던 권재운(1701~1778)은 배움에 힘써 지행을 겸비하였고, 殿牌를 지날 때는 몸을 구부렸고, 향교의 문을 지날 때는 종종걸음을 쳤다. 부모상에는 여막에 거처하며 상복을 벗지 않았고, 스승의 상에 심제하는 3년 동안 나물을 먹었다. 영조가 죽었을 때는 나이가 이미 76세였지만 나물만 먹으며 한 해를 보내어 결국 병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였는데, 고을 사람들이 권처사라고 칭송하였다.⁶⁰⁾ 1787년경 문인 권달시 등이 채제공의 서문을 받아 蒐集編次하여 목판으로 간행한 권재운의 문집에 실린 읍지 수록 내용은 1년 전에 편찬한 안동부의 읍지와 몇몇 글자만 다를 뿐이다. 그렇지만 『영남인물고』에는 이서충인 권재운은 보이지 않는다.

58) 위의 책, 139면.

59) 위의 책, 179-184면.

60) 『麗澤齋遺稿(이택재유고)』 邑誌人物條 “權載運 太師幸之後孫 與弟啓運 起自吏胥 篤志力學 知行兼備. 過殿牌則_區 過校門則_趨. 親喪居廬 不脫經帶. 師喪心制 食素三年. 英廟上陟 年已七十六 而食素過_甚 仍疾不起. 鄉人稱權處士”; 『安東府輿地誌』(MF25, 『安東誌』 292.1-夕185) 人物 “權載運 太師幸之後孫 與弟啓運 起自吏胥 篤志力學 行知兼備. 過殿牌則_區 過校門則_趨. 親喪居廬 不脫經帶. 師喪心制 食素三年. 英廟上陟 年已七十六 而食素過_期 仍疾不起. 鄉人稱權處士”

5. 『영남인물고』의 위상

조선후기 경상도 사족들은 충신·효자·관료·학자에 해당하는 인물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하거나 변경하거나 역사적 진실과는 다른 집단기억을 창작하기도 하였다.⁶¹⁾ 『영남인물고』에도 자신들의 선조에 대하여 조선왕조 개창을 거부하며 두문불출하였다거나, 목숨을 끊었다거나, 세조의 왕위 찬탈 등의 정치변동 상황에서 절의를 지킨 것으로 기억을 왜곡시키거나 변형한 경우가 보인다. 『영남인물고』에는 안동의 김자수(권1-3)가 조선건국 이후 태종이 형조판서를 제수했으나 불응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김자수는 조선 건국 직후인 태조 때부터 지방 고위 관직인 청주목사·충청도 도관찰사·관강릉대도호부사를 역임하였으며, 1413년(태종 13)에 사망하였다.⁶²⁾ 柳義孫(1398~1450, 권1-10)은 1450년에 사망한 인물인데,⁶³⁾ 家乘을 근거로 1455년 세조 즉위(乙亥遜位) 이후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히 거하였으며, 판서와 녹훈을 거부하고 제주도 정의현 적소에서 죽었다고 기록하였다.

18세기 말 상주 출신 李承延(1720~1806)은 『嶺對』를 지어 영조 때 발생한 무신란(1728) 이후 반세기 이상 관계 진출에서 경상도 인재를 소외시킨 집권세력의 경상도 편하와 차별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였다. 그는 경상도의 수려한 산천은 국맥의 진원이고, 풍부한 물산은 국가의 府庫이며, 신라의 설총과 최치원, 고려의 안향과 정몽주, 조선의 5현 가운데 조광조를 제외한 김굉필·정여창·이언적·이황

61) 조선후기 노론과 대립하고 있던 영남 남인의 입지를 강화하고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1734년 『화왕산성동고록』을 출판하였다. 이 책이 출판되자 이 책에서 ‘홍릉한’ 자기 조상의 이름을 확인한 후손들은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을 끌어와서 그럴싸하게 살을 붙여 새 이야기를 만들었다. 하영휘, 2007 『화왕산성의 기억, 신화가 된 의병사의 재조명』,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132면, 139면.

62)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11월 14일 경인 “前判江陵大都護府事金自粹卒”

63) 『문종실록』 권2, 문종 즉위년 6월 9일 신사 “前禮曹參判柳義孫卒”: 『세조실록』에는 參判 柳義孫을 원종공신 2등에 녹훈한 기록이 남아있지만, 류의손이 이미 사망 사실을 모르고 녹훈한 것으로 보인다. 『세조실록』 권2, 세조 1년 12월 27일 무진.

등 4현이 경상도 출신인 인재의 부고인 사실을 강조하였다.⁶⁴⁾ 그는 조선 시대에 해당하는 15~17세기에 배출한 경상도의 선현들을 다음과 같이 자랑하였다.⁶⁵⁾

점필재 김종직·탁영 김일손의 문장, 한훤당 김굉필·일두 정여창의 도학, 충정공 권벌·동계 정온의 氣節, 단계 하위지·화포 홍익한의 절의, 남명 조식·수우당 최영경의 高風, 갈천 임훈·도구옹 이제신의 隱逸, 문충공 류성룡·문익공 이덕형의 相業, 문간공 노수신의 詩, 고산 황기로의 글씨, 망우당 박재우·정무공 최진립의 武烈, 신재주세붕의 魁傑, 농암 이현보의 老德, 문충공 김성일·문정공 김우옹의 剛毅한 直節, 우암 홍언충·계암 김령의 淸潔, 후계 김범의 孝義, 문목공 정구의 학덕, 문강공 장현광의 학문, 문장공 정경세·백담 구봉령의 材望, 대소헌 조종도·존재 곽준의 守死善道의 절의, 삼죽당 김대유·옥계 노진·안장공 구종직·뇌계 유희인·구암 이정·덕계 오건·창석 이준·회곡 권춘관·백암 김륙·문호공 하연·약포 정탁 등 여러 공들은 혹은 優閒으로, 혹은 文雅로, 혹은 특별한 대우[殊遇]로, 혹은 덕망으로, 혹은 仕宦으로 크게 당대에 드러난 인물이다. 사가 서거정·춘정 변계량·호음 정사룡·난재 채수·허백정 홍귀달·매계 조위·동원 김귀영 등은 문장으로 세상에 알려졌고, 청풍자 정윤목·성극당 김홍미는 재주가 탁월했고, 지산 조호익·송암 김면은 의병으로 이름이 가장 드러났다.⁶⁶⁾

1776년(정조 즉위년) 정조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도현·이응원 부자는 권정침의 『서연일기』를 근거로,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逆臣들을 처벌해야

64) 김주부, 2012 李承延의 생애와 〈嶺對〉에 나타난 영남인식, 『大東漢文學』 37, 278-279면.

65) 위의 논문, 268-269면 재인용.

66) 『嶺對』, 剛齋遺稿 권4, “估畢·濯纓之文章, 寒暄·一蠹之道學, 權忠定·鄭桐溪之氣節, 河丹溪·洪花圃之節義, 曹南冥·崔守愚之高風, 林葛川·李陶邱之隱逸, 柳文忠·李文翼之相業, 盧文簡之詩, 黃孤山之書, 郭忘憂·崔貞武之武烈, 周慎齋之魁傑, 李龔菴之老德, 金文忠·金文貞之剛毅直節, 洪寓菴·金溪庵之淸潔, 金后溪之孝義, 鄭文穆之德, 張文康之學, 鄭文莊·具柏潭之材望, 趙大笑·郭存齋之守死, 金三足·盧玉溪·丘安長·俞潛溪·李龜菴·吳德溪·李蒼石·權晦谷·金柏菴·河文孝·鄭藥圃諸公, 或以優閒, 或以文雅, 或以殊遇, 或以德望, 或以宦業, 章顯於時. 徐四佳·卞春亭·鄭湖陰·蔡懶齋·洪虛白·曹梅溪·金東園諸公, 以文鳴世, 鄭淸風·金省克, 才調卓越, 曹芝山·金松庵 義聲最著”(김주부, 앞의 논문, 269면 주 53) 재인용): 이덕형, 황기로, 구종직, 서거정, 정사룡, 조위, 김귀영 제외한 인물은 『영남인물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덕형·서거정·정사룡·조위는 『국조인물고』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황기로·구종직·김귀영은 보이지 않는다.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⁶⁷⁾ 그러나 정조는 이들 부자를 대역부도 죄인으로 처형하였으며, 이들이 태어난 곳이라 하여 안동부를 강등하여 현으로 삼았다.⁶⁸⁾ 그런데 경상도 사족들은 정조가 1788년(정조 12) 남인의 영수인 채제공을 우의정으로 발탁하고, 영남 남인의 무신란(1728) 당시 의병 행적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데다가, 1792년(정조 16) 도산서원에서 별시까지 거행하게 되자 지역 인재 등용에 대한 기대로 고무되었다. 도산서원의 별시에 만 명 가까이 모였던 경상도 사족들은 같은 해 사도세자의 추승을 주장하는 영남만인소에도 참가하였다.⁶⁹⁾ 그런데 도산별시를 정조 시기 특정 지역에 집착하여 특정 지역 인재 등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전국에 걸쳐 '지역 인재'를 고루 등용하려는 방안을 실행한 여러 사례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도산별시 이후, 정조는 지역 인재 등용의 일환으로 거의 모든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강원(1792~1793), 제주(1793), 영흥·함흥(1795), 함경(1797~1800), 평안(1798~1800)의 유생을 대상으로 하는 별시를 시행하였다.⁷⁰⁾ 그러나 실제 각도별로 과거 급제자나 관직 진출자는 한두 명에 불과하였다.

1794년 이후 정조가 영남의 世族 집안에 소장된 물품을 열람하고, 서문과 발문을 작성하거나 규장각에서 인쇄한 경서를 하사하여 안동권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사족들에게 정조의 경상도에 대한 배려와 지역 인재 등용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킨 것도 사실이다.⁷¹⁾ 1798년 『영남인물고』 편찬은 정조가 단순히 조선 시대 경상도 인물을 파악하고자 한 영남문적 수집지시에 따른 경상도 사족들의 오해로 인해 시작한 결과물일 뿐이다. 정조는 경상도 사족들이 선조의 『해동인물고』 수록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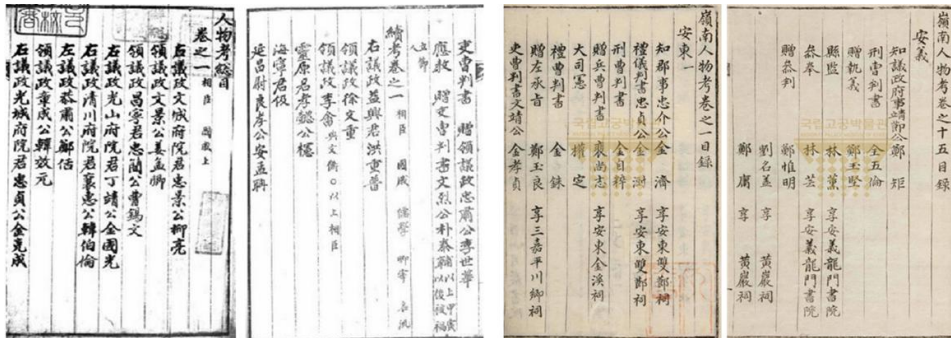
67) 『정조실록』 권2, 정조 즉위년 8월 6일 을사 “親鞠李應元. 嶺南儒生李應元上疏曰 …”

68) 『정조실록』 권2, 정조 즉위년 8월 19일 무오 “降安東府爲縣 道顯·應元胎生邑也”

69) 김문식, 2002 앞의 책, 356-365면.

70) 정조대에는 총 6종의 『빈흥록』이 편찬되었다. 영남 유생을 대상으로 한 『嶠南賓興錄』(1793), 강원 유생을 대상으로 한 『關東賓興錄』(1793), 영흥·함흥 유생을 대상으로 한 『豊沛賓興錄』(1795), 함경 유생의 『關北賓興錄』(1800), 평안도 유생을 대상으로 한 『關西賓興錄』(1800), 그리고 제주 유생을 대상으로 한 『耽羅賓興錄』(1794)이 그것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71) 김문식, 2002 앞의 책, 365-368면 참고.



〈그림 6〉 『인물고』 총목(좌), 『영남인물고』 총목(우)

대하며 물려들어 든 데 따른 대응책에 불과하였다. 『영남인물고』를 보면, 빠진 고을도 많지만, 누락한 인물을 비롯하여 수록 인물의 기준이 모호하다. 김희락은 정조의 죽음 때문으로 판각하여 배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경상도 사족들 스스로 인물지를 만들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듯하다. 비슷한 시기에 전라도 지역에서 高廷憲 등이 중심이 되어 1,600여 명에 이르는 인물을 수록한 『湖南節義錄』을 인쇄하여 배포한 것과는 비교된다.⁷²⁾

정조의 지역 인재 등용이나 체제공과의 문자 수수 등 근기납인의 영남납인과의 연대에도 불구하고, 정조시기 중앙정부나 지방관으로 관직 생활을 한 인물은 많지 않았다. 실제, 1792년(정조 16) 영남만인소에 이름을 올린 영남 출신 관직자는 얼마 되지 않았다. 전체 서명자 10,057명 가운데 소과 합격자인 생원 및 진사는 115명(1.1%), 전·현직 관료들은 81명 수준이었다.⁷³⁾ 이들 가운데 정2품 이상 재상급은 전무하였고, 정3품 이상 당상관들이 19명이었으며, 대다수 관료들은 참상관 39명, 참하관 23명 등 하위직이었다. 그나마 현직 관료는 참상 4명, 참하 13명에 불과하였다.

1798년 9월부터 10월 4일까지 정조의 명으로 규장각에서는 10여 명이 참가하여 『해동인물고』를 초록하였다. 초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국조인물고』였다. 규장

72) 김동수, 2011 『호남절의록의 사료가치 검토(1)』, 『역사학연구』 44, 31-104면.

73) 김성우, 앞의 논문, 196면.

각에는 저본이 된 『국조인물고』 72책과 이 책을 초록한 『인물고』(『해동인물고』) 26책이 남아 있다.⁷⁴⁾ 『해동인물고』는 일부 가감이 있지만, 영조대에 편찬한 『국조인물고』 수록 인물의 생몰년·자·호·시·주요관력 등을 기록한 뒤, 전기류에서 주요 행적을 발췌하고 전거를 밝혔다. 본고 23책, 속고 2책, 총목 1책, 전26책으로 엮은 것이다. 각 책의 목차에는 ‘내각’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본고와 속고에는 권별로 편찬을 담당했던 1~2명의 성명을 기재한 첩지를 부착하였다.⁷⁵⁾

서인계로부터 소외되어 배제된 일부 남인계 인물을 추가하더라도, 『국조인물고』에 추가할 만한 인물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국조인물고』 등에 수록된 경상도 인물들이 이미 2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서인 계열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인물고』에 대한 보충적인 것이었다거나,⁷⁶⁾ 전국단위 『인물고』나 『국조인물고』에서 2,000여 명을 수록했는데 지역단위에서 경상도만 별도로 전국단위의 약 30%에 달하는 600여 명을 추가로 선별했다면 이 자체가 특혜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⁷⁷⁾

『영남인물고』에는 숙종대 이원정·도신징·곽세건을 비롯하여,⁷⁸⁾ 1728년 역적의 초사에 언급된 권구와 황익재, 名義罪人으로 죄적에 오른 김성탁·조덕린,⁷⁹⁾ 사도세자 관련 기록을 남긴 권정침 등 서인 세력과 침예하게 맞섰던 인물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 경상도 출신이라도 노론이나 소론 계열의 인물이 다수 배제된 것을 보면 영남 남인의 당론서(당인서)적인 측면이 강하다.⁸⁰⁾ 당시까지 신원되지 않

74) 『國朝人物考』(奎11471), 『人物考』(奎4196-v.1-26).

75) 신승운, 앞의 논문, 222면 참고.

76) 신승운, 앞의 논문, 254면.

77) 김백철, 앞의 논문, 185면.

78) 『숙종실록』 권4, 숙종 1년(1675) 9월 23일 무신 “世樞者 其祖曰再祺 其父曰灑 與仁弘爲族戚. 昏朝時 再祺養望南臺 鄭述斥仁弘凶論 與爲仇敵 灑爲仁弘作詩諷述曰 衣冠進退眞儒者 敗俗傷風甚異端. 世樞爲人亦儉邪 必欲構害西人 上京伺釁 衆南傳客之. 李元禎構疏 嗾世樞上之 世樞攘臂自當. 世樞自多其功 意望甚高 不就參下職. 愼徵亦以官卑而棄之 故鐫等請出六品 世哲 成龍之族孫. 東益 乃許穆門客. 愼徵者 嶺南卑姓”

79) 김백철, 앞의 논문, 187면.

80) 당론서는 한쪽의 당론에 따라 충역과 선악이 분명하게 나뉘다가도, 또 다른 당론서를 접하게 되면 충역과 선악의 경계가 흐릿해지거나 뒤바뀌기도 한다. 최성환, 2015 『현고기』

있던 정인홍(1536~1623)과 이현일(1627~1704)은 수록하지 않았다.

『영남인물고』는 18세기 말 『인물고』 편찬 소식을 듣고, 경상도 사족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수록하기 위하여 바친 영남문적과 기타 전기류에서 선별한 인물들이다. 지역적으로 안동과 상주권역 등 이른바 ‘상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하도’ 지역 인물은 드물다. 과연 경상도만의 인물고를 편찬할 필요가 있었을까? 『영남인물고』라는 서명만으로 영남우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영남인물고』는 자신의 선조를 『해동인물고』에 수록하기 위하여 상경한 경상도 사족들을 무마하기 위한 정조의 임시변통책이었다. 『해동인물고』를 편찬한 직후, 정조가 제시한 시일에 맞춰 바쁘게 마무리한 것이다. ‘영남 우대책’의 일환이라는 특정한 목적 아래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영남인물고』를 제대로 편찬하려면, 먼저 1786년이나 1789년에 수집한 읍지를 바탕으로 고을별로 인물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⁸¹⁾ 다음으로는 읍지에서 추출한 초목에서 겹치거나 빠진 인물은 없는지, 경상도 출신인지, 수록 기준에 적합한 인물인지, 어느 고을에 수록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수록 인물을 확정하여야 했다. 인물을 확정된 다음 해당 인물들의 전기류를 수집하여 초록할 때 진정한 의미의 『어정 영남인물고』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정조는 『해동인물고』와 『영남인물고』 편찬에 이어 새로운 형식의 어정서인 『인물고』 130권 편찬을 추진하였다.⁸²⁾ 정조는 이의현의 『인물고』(『국조인물

해제, 『사도세자의 죽음과 그 후의 기억, 『현고기(玄臯記)』 번역과 주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7면; 영남 남인의 직계 후손인 작가가 집안의 당론을 뼈대와 정신으로 창작한 소설 『영원한 제국』은 20세기 말에 세련된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채색된 새로운 당론서이자 가장 성공적인 당론서이다. 최민성, 2016 정조(正祖) 스토리텔링의 구조와 의미 - 소설 『영원한 제국』을 중심으로 -, 『열상고전연구』 49, 169-170면.

81) 일본 天理大學 天理圖書館 今西文庫에는 1786년(정조 10)에 편찬한 경상도 읍지를 재필사한 62개 고을의 읍지를 소장하고 있으며, 일본 國立國會圖書館에는 ‘경상감영지’와 경상도 71개 고을 읍지를 포함한 『嶺南邑志』를 소장하고 있다. 『今西博士蒐集 マイクロフィルム版 朝鮮史原本コレクション』(東京: 雄松堂書店, 1968,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 원소장처 일본 天理大學 天理圖書館 今西文庫); 『嶺南邑志』(일본 國立國會圖書館 217-1).

고)가 수록 인물이 너무 적고 체재도 거칠었기 때문에, 유형원의 『여지지』, 김육의 『해동명신록』, 송성명의 『국조명신록』, 김시위의 『휘언』과 대상시의 諡狀 등을 서로 참조하여 빠진 것을 보충하였는데, 宗室부터 方技, 考餘까지 16편에 이르는 항목에 수록할 인물을 배정하였다.⁸³⁾

6. 맺음말

1798년에 편찬한 『영남인물고』는 출판에까지 이르지 않았고, 복본을 두지 않은 유일 필사본이다. 또한 수록 인물의 생몰 시기 등을 정확히 반영하였다거나, 행적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정조 말 『해동인물고』의 제작 관련 정보를 오해하여, 경상도 사족들은 소문을 듣고 자신들의 선조들을 『해동인물고』에 수록하기 위하여 관련 문적을 들고 다수의 인물이 상경하였다. 소문의 단초는 역대 경상도의 유명 인물을 알고자 했던 정조가 김희락에게 문적 수집을 지시하면서였다. 김희락도 참가하고 있던 『해동인물고』는 이전에 편찬한 『국조인물고』의 장황한 내용을 요약하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경상도 사족들이 선현의 문적을 들고 몰려들면서 이들을 무마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해동인물고』와 별

82) 『弘齋全書』 권182, 羣書標記 御定4 人物考 一百三十卷 寫本 “祕府. 舊有故相李宜顯所編人物考. 取舍失之太簡. 體裁亦欠疎狃. 予取柳馨遠之輿地志. 金增之海東名臣錄. 宋成明之國朝名臣錄. 金始煒之彙言. 與凡太常所載諡狀之屬. 互相參照. 補苴脫漏. 其分門義例. 則會粹歷代諸史而折衷之. 首宗室. 附儀賓. 次輔相. 次卿宰. 次侍從. 次儒林. 次文苑. 分古文·館閣·詩家·書家·畫家五目. 次武將. 分名將·任將·武宰·武弁四目. 次功臣. 次外戚. 次庶僚. 次蔭宦. 次忠孝. 分八士·忠節·鯁直·孝行四目. 次黨錮. 次遺逸. 次方技. 分星曆·陰陽·醫學·華語·仙釋·巧思六目. 次考餘者. 參用邵經邦弘簡錄·鄭樵通志之例也. 每一朝人物. 各爲一編. 以擬一傳之爲一編者. 用班史之例也. 總書姓名於前. 分叙事實於後者. 用歐史之例也. 指授閣臣等編摩. 雖未及克成完藁. 而宏綱既立. 固不妨細目之按此修潤. 姑書其義例槩略于此”

83) 『人物考凡例』(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韓12-8, 『人物考目錄』 국립중앙도서관 복사본 古2513-377). 2卷 1冊 51張이며, 凡例 3張, 總目 1張, 目錄卷上, 目錄卷下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록 인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도로 당시 거둬들인 영남문적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 『영남인물고』이다. 경상도 사족의 조상 현창과 정치 참여 욕구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정조의 임시변통책이었다. 따라서 『해동인물고』와 별도로 『영남인물고』를 편찬한 것을 ‘영남우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조는 즉위 이후 경화사족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각 지역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도산별시 등도 지역 인재 등용의 일환이었으며, 경상도 지역에 한정된 특별 조치로 보기도 어렵다. 정조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경상도 사족들이 정조의 경상도 인재 등용을 기대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정조 재위 기간 동안 관직자 가운데 경상도 인물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오히려 경상도 남인 세력은 중앙 정계에서 겨우 자리를 확보하고 있던 근기남인의 배후 지지 기반으로 존재하였다. 이들은 근기남인과 제휴하여 무신란 당시 영남 의병의 행적을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영남만인소를 통해 사도세자의 복권을 주장하였다. 정조 시기의 지방 인식을 경상도에 국한시켜 ‘영남우대책’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정조의 지방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화사족이 주도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인적 구성에 대한 반성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선전기와 같은 지역 인재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 시도라는 시각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정조의 지방 인식이나 대책을 주도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곤 하면서,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가 뒤바뀌기도 하는 상황에서 ‘御定人物考’의 편찬은 쉽지 않았다. 『영남인물고』의 일부는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기 전 한국 사정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고, 식민 지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선별하여 가지고 간 도서이다. 『영남인물고』에서 별책인 초목과 총목을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38개 고을 인물을 수록하고 있는 권11부터 권15까지를 선별한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영남인물고』 수록 인물에 대하여 시기별, 주제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정조 말 통용된 인물 평가 기준과 경상도 사족들이 받들고자 했던 선현 이미지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논문투고일(2021. 5. 1), 심사일(2021. 5. 24), 게재확정일(2021. 6. 9)

참고문헌

1. 자료

-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kostma.korea.ac.kr) : 『人物考凡例』(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韓12-8).
- 국립고궁박물관(www.gogung.go.kr) : 『嶺南人物考』.
- 국립중앙도서관(https://nl.go.kr/) : 『人物考目錄』(나카노시마도서관 『人物考凡例』 복사본 古2513-377), 『현풍현읍지』(고2752-4).
- 국사편찬위원회(http://www.history.go.kr/) :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 『嶺南人物考』(奎1741), 『故寔』(古0270-13), 『國朝人物考』(奎11471), 『國朝名臣錄』(奎3692), 『人物考』(奎4196).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 今西博士蒐集 マイクロフィルム版 朝鮮史原本コレクション (東京: 雄松堂書店, 1968, 원소장처 일본 天理大學 天理圖書館 今西文庫) : 『高麗縣邑誌』(74월, 『高靈誌 附 玄風·山淸』 天理大學 292.1-夕121), 『大邱府誌』(6월, 『大邱誌』, 292.1-夕133), 『安東府輿地志』(25월, 『安東誌』 292.1-夕185), 『慈仁縣誌』(111월, 『慈仁誌 附 英陽·昌寧·宜寧·河陽』 292.1-夕293).
-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 『茶山詩文集』, 『樊巖集』, 『麗澤齋遺稿(이택재유고)』, 『弘齋全書』.
-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http://ugyo.net/) : 『故寔』.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 한국 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people.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장서각(http://jsg.aks.ac.kr/) : 『嶺南人物考義例』(MF35-004667).
- 일본 國立國會圖書館サーチ(https://iss.ndl.go.jp) : 『嶺南邑志』(217-1)

2. 연구논저

1) 저서

- 구향희, 2017 『大邱儒賢錄』 2, 대보사.
- 김문식, 2007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 김문식 외, 2019 『만인의 청원, 만인소』, 한국국학진흥원.
- 김 욱, 1977 『한국 사상대전집 20 海東名臣錄』, 동화출판공사.

- (김종석 외 역), 2000 『퇴계전서』 28, 퇴계학연구원.
 박홍갑, 2020 『임란공신 박경신과 창의일록』, 주류성.
 서울대학교 규장각, 1978 『國朝人物考』 상·중·하,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상필·공광성 역주), 2011 『德川師友淵源錄』, 경인문화사.
 이수건, 1995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일조각.
 장윤수, 2013 『경북 북부지역의 성리학-퇴계에서 대산까지』, 심산.
 조강희, 2006 『영남지방 양반가문의 혼인관계』, 경인문화사.
 蔡弘遠 等著, (姜周鎭 譯編), 1967 『嶺南人物考』, 「序文」, 탐구당.
 최성환 외, 2015 『사도세자의 죽음과 그 후의 기억』, 『현고기(玄臯記)』 번역과 주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최승희교수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2002 『조선의 정치와 사회』, 집문당.

2) 논문

- 김동수, 2011 「호남절의록의 사료가치 검토(1)」, 『역사학연구』 44, 호남사학회.
 김백철, 2021 「18세기 영남 '叛逆鄉'담론의 실상과 허상」, 『영남학』 76.
 김성우, 2012 「정조 대 영남 남인의 중앙 정계 진출과 좌절」, 『다산학』 21, 다산학술
 문화재단.
 김주부, 2012 「李承延의 생애와 〈嶺對〉에 나타난 영남인식」, 『大東漢文學』 37,
 278-279면.
 민현구, 1999 「『국조인물고』 해제」, 『국조인물고』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박상국, 2011 「일본에서 돌아온 조선왕실도서」, 『다시 찾은 조선왕실 의궤와 도서』,
 국립고궁박물관.
 白 麟, 1968 「伊藤博文에 貸出한 奎章閣圖書에 대하여」, 『書誌學』 創刊號, 韓國書誌
 研究會.
 백승호, 2006 「樊巖 蔡濟恭의 文字政治」, 『진단학보』 101.
 신승운, 1988 「朝鮮朝 正朝命撰 「人物考」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서지학연구』 3.
 우정임, 2016 「金堉의 『海東名臣錄』·『國朝名臣錄』 편찬과 사상적 의미」, 『영남학』
 30.
 이상찬, 2002 「이등박문이 약탈해 간 고도서 조사」, 『한국사론』 48, 서울대 국사학과.
 이재두, 2019 「1786년 편찬한 이마니시문고 『경상도읍지』의 분석과 그 의미」, 『동방
 학지』 188.
 _____, 2020 「2011년 환수한 국립고궁박물관 『읍지』 74책의 유래와 특징」, 『조선시
 대사학보』 94.
 전병철, 2011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 진주편(晉州篇) 등재인물의 시기별 특징」,

-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경남학』 32.
- 조준호·손성필, 2020 「『한국고전총간』 ‘전기류’의 편찬 방향 검토」, 『민족문화』 55.
- 최민성, 2016 「정조(正祖) 스토리텔링의 구조와 의미 - 소설 『영원한 제국』을 중심으로 -」, 『열상고전연구』 49.
- 하영휘, 2007 「화왕산성의 기억, 신화가 된 의병사의 재조명」,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AbstractCompilation of *Yeongnam Inmulgo* by King Jeongjo

Lee, Jae-doo *

Yeongnam Inmulgo (『嶺南人物考』), edited in 1798, did not reach publication, and is the only manuscript without a copy. It is also true that it is difficult to describe the exact time of the person's birth or death, or objectively describe his behavior. In Gyeongsang-do at the end of the reign of King Jeongjo (正祖), a number of figures gathered in Seoul holding related records to include their ancestors in *Haedong Inmulgo* (『海東人物考』). This is because they misunderstood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Haedong Inmulgo*. The beginning of the rumor began when King Jeongjo, who wanted to know famous figures in Gyeongsang-do, ordered Kim Hee-rak to collect biographies of great men. Kim Hee-rak's participation in the production of *Haedong Inmulgo* was a work that summarized the lengthy contents contained in the previously compiled *National Inmulgo* (『國朝人物考』).

However, it was necessary for the ruling classes of Gyeongsang-do to calm down as they came to Seoul with the biographies of great men. Apart from *Haedong Inmulgo*, *Yeongnam Inmulgo* was summarized based on the biographies of the great men of Gyeongsang Province collected at the time. It was a temporary transformation of King Jeongjo to encourage public opinion to praise their ancestors' achievements and to appease their desire to participate in central politics. The Gyeongsang-do ruling class tried to create public opinion to praise the achievements of their ancestors and participate in central politics. Therefore, the compilation of this book was a temporary expedient for King Jeongjo to quell their desires, an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is a measure to give

* Teacher, Yeungnam High School.

preferential treatment to the ruling class of Gyeongsang Province. Above all, as I was experiencing in Crown Prince Sado's memorial service, it was not easy to compile 'Eojeong Inmulgo (御定人物考)' at a time when the perception of a certain event, the thoughts of a certain person, and the historical reevaluation are changing.

Key words : *Yeongnam Inmulgo* (『嶺南人物考』), 'Eojeong Inmulgo (御定人物考)', King Jeongjo (正祖), Kim Hee-rak (金熙洛), Gyeongsang Province (慶尙道).